

여성주의 놀이터팀 <우주전복계확단> 프로젝트 잡지

내 눈에 사과

성령 다가서는 일상의 여성주의
20대 총여학생회 「틈을 누비다」

여성주의 놀이터 프로젝트 잡지

내 눈에 사과

2008. 3 호

특집 <학교>

사물함살의 여자아이들
학교를 기억하라
나 대학 나온 엄마야
힘들며 살 붙이는 이야기
학교는 싸울랜드, 나는 파이터
학교 담장 넘어보기

주제로 말 풀기

바보노의 정세판단
상어의 해완동물해방론
오늘의 트라우마
공간 더듬기
원지 모를 연애 치고 빠지기
드라마 뜯어보기
경험으로 박힌 음악
오늘도 머리에 쥐난다



“You are the apple of my eye”

20대 총여학생회 「틈을 누비다」

CONTENTS

특집: 학교



02 학교 지도 그리기 03 사물함실의 여자아이들
06 학교를 기억하라! 10 나 대학나온 엄마야

횡단하며 살붙이는 이야기



12 학교는 싸울랜드, 나는 파이터 13 Another Brick in the Wall.
16 학교당장 넘어보기 18 '진보' 깨물 속에 숨은 천근대성

20 바보노의 정세판단 24 상어의 애완동물해방론 28 오늘의 트라우마
30 공간 더듬기 34 원지 모를 연애, 치고 빠지기 43 드라마 들어보기
47 경험으로 박힌 음악 51 강의실 통같은 이야기 54 오늘도 머리에 쥐난다
56 후기



여성주의 놀이터 프로젝트 잡지

내 눈에 사고



학교

지도 그리기



이 비열하고 비참한
체제와 아동학대
피자배 계급을
억누르는 굴레가
무너지고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전쟁은
어디에나 있다.

1997. 봄 일만 대위 30주년
기념전경 공연에서
사노 오비나 WAR

학교의 사건을 찾고 진정한 적에 대항하라(Fight the real enemy)고 단호하게 내뱉으며 키에라 너머를 응시하던 시나드 오코너. 그녀의 몸에 남아있는 아동학대의 기억에 대항하는 그 행위를, 그녀는 가물럭럭 학교에서 자행되지만 그 종교인들은 침묵하고 있는 성적 학대에 대한 공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녀에게 이유를 보내는 관중 앞에서 불규칙듯이, 그러나 신중하게 그녀는 "아동 학대! 그래, 아동 학대!"라고 노래했습니다. 암송하기까지 한 그 파랄게 떨리는 영상을 보며, 나는 침계 전을했습니다. 내 목소리가 그녀와 같이 크게 터져나올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는 오랜 기간 학교라는 공간에서 살아왔고, 많은 이들이 아직도 살아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가부장제 사회의 수많은 당연한 규율들이 속속들이 체화되는 학교에서의 시간은, 마냥 억압으로 점철되지도, 그렇다고 아름답게만 돌이킬 수 없는 기억일 것입니다. 일상을 이끌어가던 무미건조함과 버려질 수 없는 감동이 섞이고 온몸을 뒤흔들게 하는 목소와 함께 웃을 수 있는 역올함 그리고 눈물이 공존하는, 어쩌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학교에 대한 소박하고 피사로운 이미지가 어물리지 않는 공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를 각자의 세밀한 이야기가 하나 둘 발을 발을 물러갈 때마다 뭉뚱그려지지 않는 진실이, 생각지도 못한 균열이, 드러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학교를 물 위로 떠올리고자 했습니다. 나누기는 엄마를 옥죄던 학교의 진정한 의미를 불현듯 알아채던 순간에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기억을 모두 삭제할 수 없었던 지음은 학교를 기억하지 않는 이 사회에 느낀 공포를 내보냈습니다. 학교 '사물함실'에서 만났던 보노와 관계는 그녀들의 불안정성을 소동으로 치환하였지요. 여기저기서 박타치게 싸워온 피아터 자음의 학교 이야기와, 학교라는 코드로 보는 이 사회의 권위주의에 대한 우려의 글 여기저기서 가슴으로 파고든 학교 이야기들을 넘나들며 학교라는 공간의 의미를 짚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번 호에도 눈이 휘둥뚱이기에 청세만단하고, 공간을 더듬고, 경험으로 박힌 음익을 노래하고 오늘의 트라우마를 포착하고, 해원동물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연대 관계를 원지 풀라하며, 머리에 쥐가 나도록 고민했답니다. 시나드 오코너 그녀의 노래와 같이, 용기라는 단어로는 다 표현되지 않는 절절한 싸움, 목소리는 단어로는 너무 많이 부족한 공명의 외침을, 우리들의 언어로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년에 사과 3호, 학교가 시작됩니다. ●

〈우주전복계화단〉

사물함실의

여자



아이클

내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남다 남은 3층짜리 조그마한 건물이었다. 보통 부설 고등학교는 사범대 옆에 있기 마련인데, 우리 학교는 의과대학 캠퍼스 안에 있었다. 학교 바로 옆에는 엄청나게 큰 대학병원이 자리잡고 있었는데 대학병원에 오는 사람들은 웬만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한 너무도 띄끄만 우리 학교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다. 학교 앞은 유흥가였고, 뒤는 강변이었다. 날씨가 좋은 날엔 환자들이 풀밭에서 공놀이를 했다. 5월 정도면 학교와 마주보고 있는 의대 해부실습실에서 음습한 악풍냄새가 풍겨져나왔고, 호기심 많은 고등학생들을 쫓아내는 의대 조교들의 모습은 익숙한 풍경이었다.

삼면이 대학병원, 장례식장, 해부실습실로 둘러싸인 작고 낡은 우리 학교는 예전엔 수의대 건물이었더랬다. 그래서인지 보통의 고등학교와는 좀 다른 구조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사물함실의 존재가 그것이었다. 보통의 학교

가 북도 한쪽 면에는 교실이 쭉 있고 한쪽 면에는 커다란 창문과 신발장이 정렬해 있다면, 우리 학교는 신발장과 큰 창문이 있을 자리에 교실보다 작은 방이 하나씩 더 있었다. 그냥 보기에 '편학분위기 조성'하기 야릇한 이 고등학교는 보수적이고, 명문대 전학들이 꽤 높았던 나의 고향에서 허랑하기로 첫째가는 학교였다. 아이들은 우리 학교에 배정되면 대개 울음을 터뜨리곤 했는데, 왜냐면 우리 학교가 당시만 해도 인문계 중 유일한 남녀공학이었기 때문이다. (남녀공학이라 애들이 멋조라 비해서 공부 안 한다는, 그때까지만 해도 엄청 실속학도는 이유였다.) 내가 입학하던 해는, 학부모들이 남녀 합반에 유별나게 반발을 하여 여학생과 남학생의 반을 분리했던—그러나 결과는 처절한 실패였다고 자기들끼리 평가했던—처음이자 마지막 해였다. 학교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생겼던 그해, 1학년 여학생반에서 만난 우리는 학교 생활을 대부분 그 사물함실이라 불렀던 그 작은 방에서 보냈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이야기했다. 풀 곳이 필요했고, 나의 고민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인정받아야 했다. 매일, 매시간을 이야기해도 마르지 않는 수만 가지의 고민과 백만 가지 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모든 평가의 잣대는 공부를 잘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였고, '사회적으로' 적합한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였기 때문이다.



학교 정문에 다다랐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풍경은 학부보다도 사물함실 창문에서 빼꼼히 내다보고 있는 친구들의 얼굴이었다. 3교시 끝나고 도시락 까먹던 곳도 사물함실이었고, 만화책을 쌓아두던 곳도 사물함실이었다. 싸움의 그라운드도 사물함실이었고, 눈물과 웃음으로 범벅된 얼굴로 다시 화해하던 곳도 사물함실이었다. 의미는 없고 재미만 있던, 도대체 어떻게 시작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 물마시기 게임(몇 개의 사물에 정수기를 물 가득 담아 어떤 과정에서 지정한 한 명이 큰 물리사이에 물을 칠당할까 알아 판정하는 게임) 급작스럽게 물량이 오면 바로 앞에 있던 화장실에 가서 다 토해내고 다시 시작한다. 당시 딱히 놀란 것이 없었고, 가학적인 것에서 오는 해방이 있어 중독적으로 했던 것은 사물함실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이루어졌고, 모의고사 성적이 못 나온 날이면, 혹은 공부가 너무도 안되는 날이면 그날 야자시간은 사물함실에서의 상담으로 대체되었다. 그날따라 기분이 좋지 않았던 담임선생에게 맞아 피멍이 든 친구의 허벅지에 악을 발라주던 곳도 사물함실이었고, 알고보니 아빠에게 애인이 있더라며 눈물

로 친구의 교복 플라우스를 적시던 곳도 사물함실이었다. 좋아하던 3학년 선배가 지나갈까 봐 쉬는 시간마다 사물함실 창문 앞에 모였고, 그 선배에게 애인이 생겼더라며 잊기를 눈물로 다짐하던 곳도 사물함실이었다.

나는 그 사물함실에서, 처음으로 나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우리에겐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웠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듯 여기는 것이 듣는 자의 의무였다. 모두가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했고, 모두가 각자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다. 나에게 '학교'는 내가 가장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공간이었고, 그 입을 통해 터져 나오는 상처를 보듬어 주는 이들이 있었던 곳을 일컬음이 전부였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이야기했다. 풀 곳이 필요했고, 나의 고민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인정받아야 했다. 매일, 매시간을 이야기해도 마르지 않는 수만 가지의 고민과 백만 가지 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모든 평가의 잣대는 공부를 잘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였고, '사회적으로' 적합한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였기 때문이다. 소통과 공감을 통해 내 경험이 존중되고 그리하여 내가 중요한 존재라는 것, 내가 잘못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야만 했다. 비록 대부분 해결의 빛은, 싸워나갈 앞으로의 시간에 대한 결의와 책임은 우리 각자에게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말이다.

치마길이를 규제당하고 지각하면 허벅지에 피멍이 들도록 맞고, 수업시간에 볼펜 딸깍거렸다고 맞던, 성적으로 분류되고 가정 형편이 교무실 입방아에 오르내리던, 그것들을 피해서 사물함실로 숨어들던 그때 그 여자아이들은 이제 자라서 더 큰 '학교'로 나오게 되었다. 여전히 우리는 다르지만 또 같은 고민들을 하고 있다. 안정된 직장을 가지는 것이 수학적 성적 올리는 것 이상으로 힘들고, 일자리 경쟁에 생활비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치게 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몸을 아물답지 않다 말하고, '정상가족'이 아니라며 손가락질하고, 혹은 정상가족을 만들라 하고, 학벌로 우리의 능력을 재단하는 이곳 세상에 땀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사물함실은 없다. 그리고 손잡아주던 우리들은 각자 너무 먼 곳으로 떨어져 있다.

예전처럼 서로의 생활을 속속들이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다른 소중한 사람들이 각자에게 더 생겼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서로를 찾는 것이 박연한 그리움 때문은 아닐 것이다. 성적도, 키도, 연애스타일도, 성격도, 너무 달랐던 우리가, 서로를 지지하고 이해하고 긍정하게 되었던 소통과 연대의 경험이 믿음으로 남아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한번은 더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들, 내 삶의 맥락을 알고 있기에 내 경험과 아픔에 좀 더 많이 공감해줄 사람들, 과정을 알기에 기쁜 일에 더욱 기쁨 우리들을 여전히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거대한 대학병원과 오래되고 권위있는 의대건물들과 장례식장에 둘러싸여 생뚱맞게 들어서 있던 조그만 고등학교의 조그맣고 어두운 사물함실. 정경과 효율, 정상과 순결, 질서와 안정이라는 가치들 속을 불안하고 휘청이고 다니던 여자아이들. 달은 끝났고 그들은 이제 기억으로만 존재한다. 여자아이들은 자랐고, 여자아이들이 숨어들던 조그만 사물함실 자리엔 거대한 압센터가 들어섰다. 하지만 그 기억과 믿음은 여전히 우리를 잊고 있고, 우리를 둘러싼 삶의 조건들은 더 확장되었다 뿐이지 별반 변하지 않았다. 선선히 가자. 우리의 기억을 현실의 관계로 다시 살리며, 잡을 수 있는 그 누군가의 손을 더 늘려가며, 그렇게 선선히, 하지만 필사적으로, 손잡고 가자. ●

by 성장이 아냐, 구성되고 있을 뿐 분노

집에 가는 길에 우연히 같은 중학교에 다닌 사람을 만났다. 일부러 자리를 옮겨온 그녀는 나를 너무나도 반가워하며 기쁜 기색이 완연하여 말을 걸었다. 정말 오랜만이야, 어떻게 지냈니, 왜 연락 안 했니, 어떻게 그러니, 우리 그렇게 놀았는데, 그 때 좋았는데, 어디 갔었잖아, 정말 많이 많이 놀았다, 참 그렇다. 쏟아지는 말을 속에 나는 속을 편했다. 나도 중학교에서의 시간이 그리울 뻔 했다. 아련한 장면들을 떠올리며 그래 그 때 그렇게 즐거웠지라고 생각할 뻔 했다.

그러나 그녀를 바라보는 나의 흔들리는 시선을 숨길 수 없고, 석연치 못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이상해, 도대체 왜 난 나를 반가워하지?

기억해볼까?

그녀가 나와 함께 다녔던 바로 그 학교 입학한 순간, 나는 당연한 차별과 폭력을 맞닥뜨렸다. 성적에 따른 학생의 위계화, '트렌디함' 즉 '잘 노는 것'에 따른 친구의 위계화, 폭력성에 따른 도태 집단 내부의 위계화. 그 중 어느 하나 밑바닥의 능비치를 가진 이는 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예민하게 포착되고 썬마로 불려우며 왕따를 당하는 일이 아무렇지 않았다.

학 교 를 기 억 하 라!

충격과 공포다
그지 갱갱이들아!

14살에는 방정식 문제를 잘 풀고 못 푼다는 이유로, 15살에는 영단어의 발음을 알고 모른다는 이유로, 16살에는 조선 시대의 누구왕이 만든 어떤 제도를 외우고 외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1000여명의 학생은 일렬로 줄세워졌고, 차등화된 대접을 받았다. 성적으로 누군가의 지위를 확인하는 이 제도는 공공연한 일상이면서도, 때번의 시험마다 선정적인 사건이었다.

성적을 부기로 타인을 차별할 수 있는 이는 참고서를 붙들었고, 폭력성에 우위를 점한 이는 더욱 자신의 폭력성을 과시하는 데에 골몰했다. 핫한 아이템으로, 잘 노는 것으로 신분상승을 꾀하는 자도 있었다. 그리고 각자 자기가 획득한 권위로 아등바등 타인을 내리깔았다. "제가 무섭긴 하지만 나는 이렇게 명칭하지는 않지." "재는 온다고 잡치지마 나한테 한 대 맞고 올련데." "저 뽕쟁이는 옷을 왜 저렇게 썬마같이 입냐." 그것이 생존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권위주의와 위계화를 몸으로 터득했다. 그 공간에서.



당연하다고 말하더라. 그 나이 때에는 그런 일도 있고, 그래야 위아래도 알고, 사회생활도 하고, 그래야 어른이 된 거라고 생각하고, 내뱉더라. 그런 폭력을 옹호하는 것이다. 그건 반민주다.

(물론 획일화된 상식을 일괄적으로 전파하는 국가 권력에 반대하지만.) 그들의 논리대로 상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공교육을 하고, 그 교육을 잘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을 쓴다면, 시험을 치르는 것으로 끝나야 한다.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한 대가로 배려거나, 모욕을 주거나, 서열화하고 서열이 낮은 이를 차별하는 것은 나쁜 뿐 아니라 불필요하다. 그 불필요한 것을 필요하다고 말하고자 한다면 우기는 수밖에 없다. 그 비논리를 정당화하기에 가장 쉽고, 비논리가 논리인 양 받아들이도록 만들기까지 하는 것은 '물리적 폭력'이라는 권위주의의 극치다. 거부할 수 없는 폭력에는 겹들여지기 마련이고, 언제나 '때려도 되는 사람들' 이 '맞아도 되는 사람들' 과 한 공간을 사용하며 감시한다는 사실은 학생들을 공포로 혼용하고 그 틀 안에 맞춰낸다.

학습한 권위주의, 학습한 폭력성은 그것이 통용되는 공간에서 고스란히 발현하기 마련이다. 비논리가 논리와 같기에, 그것은 별로 걸리는 것도 없이 청행한다. 폭력과 억압에 재능이 있거나 그것을 획득할만한 자원이 있는 자들은 군림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감피한



일상을 근근이 이어가거나, 불려 권력 획득을 소망한다. '내가 조금 더 나은 것'을 찾아내기 위하여, 카이지 않기 위하여, 생존하기 위하여.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학교'라는 공간을 '추억'한다. 즐거웠던 기억이 은근하게 미화된 형태로 남아 원인을 알 수 없는 아스라한 파도함을 회상하게 된다. 억압적인 기억은 아예 생애의 주기에서 분리되어 삭제되거나, '그럼 만 했으니까', '예들이 철이 없어서' 등의 말로 정당화되고 '한 때 그런 것', '그 때는 원래 그런 것'이라는 천직 철없던 일진, 전직 철없이 늙은 사람, 전직 철없던 평생아들의 생생한 간증은 중등교육 시기와 지금의 그들이 마치 다른 개척인 양, 막 찰라내며 '인권의 범위'까지 갈

라낸다. 권력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립들은 나이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학원 폭력'이라고 일컬어지는 학생 간의 폭력에 대해서는 그나마 논리가 통용된다. '아이들'에게 폭력에 대한 권위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짜 권위'를 가지고 행해지는 학원 폭력, 교사에 의한 폭력에 대해서는 더더욱 관대해지고, 오히려 지지하는 행태도 보인다. 제벌을 행하다가 징계나 고소를 당한 교사는 '심각하게 가해자인 교사' 원칙의 피해자인 학생의 구도가 눈에 띄지 않을 경우 연인의 시선을 받기 일쑤며, 가혹한 제벌이 이슈가 되는 학교는 '그래도 그렇게 맞았더니 사람 되더라/명문대 많이 보내더라'는 절대적인 가치에 의해 옹호된다. 특히나 명문고의 경우 그렇게 해서 나는 훌륭하네 나들이 뵈었고 비난이라는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인 '모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우성이 여기저기서 울음 울린다.

조금 더 돌이키면 안 될까?

은근슬쩍 팔을 만지는 미술 선생님이 성추행 가해자로 당신의 몸에 남아있지 않은가? 생각이라는 것 자체를 막아버린 잔혹한 물리적 폭력이, 그것을 행하는 자의 권위에 바로 복종하도록 하지는 않았나? 공부 잘하는 애는 은근슬쩍 옹호하며, 공부 못하는 애를 무시하고 흠대하던 교사의 차별에 억울함을 느끼면서도 어쩔 수 없다며 서로의 무력감을 다스리지

는 않았나? 그파워 청포에 서달리며 분노하다가도 점차 폭력에 무력해지도록 학습하는 공간이지는 않았나? 혹시라도 그것을 '사회화'로 정당화하지는 않았나?

이미 재구성된 기억에는 전심으로 그런 서사가 없을지도 모른다.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나이의 시간들, 그저 '원래 그런 것'으로 내버려두기 쉽고, 사실 그것이 편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예쁘기만 한 추억과 상충되는 또다른 기억이 있다. 분노하거나, 상처를 드러내거나, 끈질기거나, 폭력에 저항하는 등, '말한 현대인'에게는 권장되지 않는 되새김질을 요하지만, 그 기억이 진실임에는 틀림이 없다. 학교는 그저 그런 짜증나는 기억들이 있기도 했던 그라운 공간이 아닌, 브라우마의 온상,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는 폭력이 '나이 어린' 자들에게 자행되고 학습되는 끔찍한 공포육의 현장이다. 삭제해서도 안 된다, 왜곡해서도 안 된다, 미화해서도 안 된다, 삭제해서 잊혀지고, 왜곡하여 정당화되고, 미화되어 삶과 분리되어버리는 것이 나는 무섭다.

이것이 내가 격렬적함을 펼쳐낼 수 없었던 이유다. 그녀는 잊은 것 같았다. 그 공간에서 그녀와 나를 비롯한 14살에서 16살 사이의 아이들이 이유없이 폭력에 굴종했다는 사실을,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고스란히 당했던 사실을, 그 또한 폭력의 당사자였으며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즐거움 듯 대화를 이어나가는 그녀는, 지금도 그 폭력이 지금의 14살에서 16살 사이의 아이들에게 유전되고 있을 것이라는 현실에는 마치 사고의 연결회로가 끊어진 것 같았다.

그녀가 신이 나서 동창들의 이름을 열거하기 시작했을 때에 나는 부러 머릿속에서 내몰아 야만 했던 그 괴로운 기억이 행적을 갖추기 시작해 식집했다. 순종하고 맞추어진 그녀들이, 본파는 다르나 본질은 다르지 않은 욕망을 똑같이 안고 생활하면 그 환경이 눈앞에 선 하게 그려졌다.

그 기억을 되살린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그러나 그 시간이 그렇게 삭제되고 그 공간이 그렇게 방치되는 것은 더더욱 끔찍한 일이다. 그 억압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읊조리, 학교를 기억해야 한다. 외면해서도, 잊어버려서도 안 된다.

'기억' 충동이 공포로 다가온 것은, 그녀와 내가
별로 친하지 않았음을 깨달은 그 때다. ●

by 오리 세상의 지중

억울하다는 생각만 들었다. 나는 무슨 독립투사라도 되는 양 입술을 꼭 다물고 손바닥을 내 밑에 깔았다. 너무 커서 어색한 교복만복이나 교실은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몇 대 맞지도 않았지만 너무 억울했다. 이젠 음모였다. 음모!!

중학교 입학 당시 가정환경 조사서에 엄마의 학력을 고졸로 썼던 게 원인이었다. 내가 아는만큼 쓰라길래 사실대로 쓴거였다. 그런데 엄마는 불같이 화를 내며, 종이를 다시 받아오라고 했다. 이해가 안되는건 둘째치고, 학기초부터 혼나기 싫은 마음에 온힘을 다해 대들었지만 엄마는 너무 강고했다. 결국 엄마가 눈물을 흘리는 것 까지 보고 나서야 포기했다.

엄마는 고졸이었다. 한번도 그것이 문제되었던 적은 없다. 엄마는 너무 엄마다웠고, 내 6년 학교 생활 내내 엄마는 알아주는 '학부모' 였다. 이해할 수 없었다. 난 그냥 엄마가 괜히 자존심이나 세우려고, 잘난 척 하려고 거짓말 하려는 건줄 알았다.

나 대학 나온 엄마야!



한자로 이름을 못 쓰던 반 친구가 있었다. 수업시간에 있는 대로 창피를 당했었다. 그리고 출석부를 가지러 교무실에 갔을 때, 그 창피를 주던 선생님은 주변 선생님들에게 말했다.

“부모가 대학을 못나왔으니, 개가 한자로 이름을 어떻게 쓰겠어.”

음모는 밝혀졌다. 중학교 내내 부모의 학력은 학교 내에서 나의 위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다. 대학이라는 타이틀이 모든 사람의 인격을 결정짓는 무시무시한 것이라는 것을, 명문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성인군자가 되고, 학력이 '낮은' 사람은 시정잡배가 되어야 한다는 그 무시무시한 세상의 기회를 눈치 채고 나서야, 그날 엄마가 눈물을 흘림하면서 까지 나를 몰아부쳐야 했던 까닭을 알았다.

학교 안에서 우리들은 우리를 개개인으로 존재할 수 없었다. 어떤 집에 어떤 자식들로 존재했다. 명문대를 나온 아빠의 학벌이 그리고 감히 고졸이라고 쓰지 못했던 엄마의 거짓말이 나를 가정교육 잘 받은 모범생으로 만들었고, 학교를 다니는 내내 나보다 먼저 나를 설명하는 것들이었다.

그날 엄마는 수치스러웠다고 했다. 엄마가 나에게 끊임없이 대학 못간 이유를 설명하게 된 것도 그때부터였다. 엄마에겐 어쩌면 트라우마로 남은 일인지도 모른다. 대학을 나와야 '그럴듯 하다'라는 쓸데없는 기준 하나 때문에 엄마는 평생 선생님들과의 대화속에서 학부모 친구들과의 대화속에서 행여 대학시절 M.T 이야기라도 나올까봐 마음을 졸여왔을 지도 모른다. 괜히 얼굴이 달아올랐을 수도 있고, 그럴때 마다 애꿎은 맥주 병체를 댔을지도 모른다. 괜히 전날 밤에 지어낸 얘기를 떠벌려 놓고 그날 밤엔 이부자리를 뒤척였을지도 모른다. 거짓말을 하게 한 건 학벌주의 사회이지만, 결국 그 거짓말은 오롯이 엄마의 거짓말이 되어 지금도 엄마를 괴롭히고 있을지도 모른다.

엄마는 대학에 가고 싶었을까? 엄마는 대학이 가기 싫었던 건 아닐까? 엄마는 하고 싶은게 뭐였을까? 그 당시 갑자기 외할아버지의 경제력이 급격히 쇠락하여 어쩔 수 없이 취직을 했었다는 그 말 말고, 엄마의 그 시절 이야기들을, 고민들을 듣고 싶다. 엄마에겐 단 한번이라도 엄마에게 더 나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 결국 그녀가 할 수 있었던 건 거짓말 뿐이었겠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가슴이 턱 막혀온다. ●

by 아직 고졸 나누기

학교는 싸울랜드, 나는 파이터



안녕? 난 파이터 자몽. 내 이야기 들어볼래?

중학교 때의 나는 당연시된 폭력과 그에 힘을 실어주는 권위주의에 처음에는 놀라고, 그 다음에는 익숙해지고, 그리고는 무기력해졌다. 선생은 학생을, 교장은 명교사를, 일진 학생은 나머지 학생을,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을 찍어눌렀다. 화는 났지만 '맞서 싸우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손 놓고 있으면서 공상으로 소일하고, 그저 그 공간을 벗어나는 것만을 바라며 살았다. 점점 학교에서 자는 시간이 늘어났다. 학교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었다.

그 공간에 걸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은 점점 겉으로도 드러났고, 그래서 학교의 규칙에 끼워맞추려는 모든 시도들과 원치 않는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 공간에 있는 모든 타인을 무시하는 시선은 교실을 평정한 학생들의 반감을 샀고, 어떤 적극적인 교사들은 교복/교칙/교권에 대한 무시를 자기 자신에 대한 무시로 받아들이며 체벌로 다스리려 들었다. 규칙 바깥에 있는 나는 거슬리는 존재로서 권력자들에게 찍혀있었다. 그래도 절대적인 가치로서의 성적에서 우위를 점했기 때문에, 딱히 맞거나, 시시덕거릴만한 친구를 몰수당해 왕따를 당하거나, 교사들이 함부로 대하는 경우는 없었다. 교사에게 반항했다는 이유로 얼마만 학교에 불려다니며 고생을 했고, 집안의 분란으로 이어지곤 했다.

'시비거는' 중학교와 물리적이고 상징적으로 단절하기 위하여 고등학교는 일부러 멀리 있는 곳을 원했고, 그 '특수한 목적' 하나로 특목고 시험을 치렀다. '특목한 학생들에게는 굳이 체벌이

필요하지 않다'고 누누이 강조하던 그 학교에서 체벌은 특별한 사건이었고, 대부분 중학교와의 엄청난 대비로 인해 마치 학생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언제나 어디에서나 학생을 불신하며 감시하는 시선을 느낄 수 있었고, 입시 위주의 학교가 가진 '특수한 목적'에 따라 그것은 얼마든지 정당화되었다. 0교시부터 야간 자율학습까지 학생들의 밥먹는 시간, 쉬는 시간, 떠들 수 있는 시간, 책을 볼 수 있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과 공부하는 시간을 통제하는 학교에서는, '생머리라면 길이는 규제하지 않는다'거나 '학원이 이유라면 야간자율학습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자유로운 분위기'를 자랑스레 입증하기도 했다.

게다가 '똑똑하고 안전한' 학생들은 스스로가 인간이 아닌 관리 대상이라는 사실 또한 '똑똑하고 안전하게' 잘 수용하기 마련이다. '불만'이 없는, 가시화된 '적'이 없는, 그러나 관계의 지면에 나아간 자들에 대한 혐오와 폭력적인 시선이 상존하는 그 공간은 지속되는 평온함 가운데 문득 숨이 턱 막히기도 하는 곳이었다. 관리 대상에서 이탈하는 것은 학교 권력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인 동시에, 입시 위주의 공간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혹은 그렇게 밟도록 교육받은 학생들에게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에, 감시시스템은 공고했고, 가끔 치마는 분노는 남몰래 일었다가도 슬픈 감정을 동반하여 사그라들 수밖에 없었다.

Another Brick in the Wall.



We don't need no education



We don't need no thought control



No dark sarcasm in the classroom



이 온근하게 키워온 전투력은 대학에서 뿔 터졌다. 페미니스트로 살자고 신이 나서 결의한 다음에는 사사건건 싸움 일, 심지어 잘 싸워야 할 일 투성이었다. 페미니스트로 살자는 것은 전문싸움꾼이 되자는 결심이었다.

여성주의적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 불편한 것들, 싸워서 바꿔야 할 것들이 산적했다. 문제제기-무시 혹은 경멸, 문제제기-귀찮아함, 문제제기-오히려 화를 냄 등의 대응은 가부장제가 그 만큼 공고하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더 잘 대화하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모든 표현력을 총동원하여 애를 써도 권력의 끝자락을 건드릴락 말락한 거대한 적을 이겨야 언어로서, 일상으로서, 그리고 몸으로서 인식하고자 말았고,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내내 나를 괴롭히겠다면 이제는 내가 괴롭히겠다는 결심으로, 내 과거의 기억, 현재, 가까운 미래를 지배하는 지난한 싸움이 다시금 시작되었다.

나는 우리 모두가 합숙해온 가부장성과 싸우겠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나는 '분란을 일으키는' 페미니스트에 대한 공격과 싸우기 위해 더욱 명확하고 올바른 것을 요구 받았고, 페미니스트에 대한 편견과 싸우며 인신공격에 대처하는 강인한 마음을 키우며 끝없는 감정노동에 익숙해지기도 했다. 심지어 공격적이고 배타적인 페미니스트라는 동질화의 폭력에 대항하기 위하여 친절해지기 위해 나 자신과 싸웠고, 그런 타자화하는 시선 자체를 비판하면서 싸웠다. 이 가부장제 사회의 '페미니스트 주변화하기'는 예상치 못한, 혹은 그나마 믿고 있던 대상에게서도 불꽃 치고 들어오기 마련이라, 언제나 가드를 올리고 살 수밖에 없다. 가부장 학교, 가부장 교수와 가부장 마초들, 그 모 모든 가부장성, 학보 기사에서도, 누군가 던지는 농담 한마디에서도, '좋은 의미로 하는' 선전에서도, 치밀하게 기획된 나의 적은 출현했다.

그래도 그나마 지금은 드러내놓고 싸울 수 있고, 사람들을 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중등교육기관에서 느꼈던 것 같은, 실체를 알 수 없는 '당연함'에 부딪치고 있다는 무력감은 줄었다. 다만 그 '사람들'이 그 '당연함'과 마찬가지로 미동도 하지 않을 때, 귀를 막고 있을 때, 내가 죽자사자 달려든 시간을 무시하거나 이에 거슬러 올라갈 때, 힘이 빠지는 한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다시 도박이고 힘내고 싸우러 갈밖에 없다. 이 글을 쓰는 것, 폭로하고



토로하고 기억하고 드러내고 저항하는, 지금 이 행위 자체도 싸움의 일부다.

나에게 학교는 싸울랜드다. 언제나 어디서나 온근히 혹은 격하게 싸워왔고, 아예 이를 드러내고 싸운지 삼년쯤 되다보니 지독한 년이라는 소리도 간간히 듣는다. 상대가 동료건 직원이건 교수건 총장이건 세련된 마초건 개마초건 풀마초건 대마초건 한 번 물면 악다구니를 쓰고 뼈가 드러날 때까지 늘어진다. 17년의 교육기간동안 나는 이 싸울랜드에 아주 잘 적응한 파이터로 성장했다.

내 아무리 뽀빠이라도 지치기는 한다. 사실은 나 놀랜드에서 살고 싶다. 오순도순 말이다. 그러나 이 가부장제/이성애중심주의/남성중심의 권위로 가득찬 사회라는 것이 말이다. 꼭 그리 까칠하게 굴고 지랄을 쳐야 그런 이야기도 하는구나 안다는 거다. 사실 학교 뿐 아니라 이 사회 자체가 싸울랜드다. 이 가부장제 사회의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나는 파이터다. 귀를 막을지언정 눈썹을 찌푸릴지언정 비가시화된 것들을 드러내어 신경쓰도록 만드는 것은 그리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이젠 내가 다른 이들과 서로 믿고 의지하고 내적 평안을 찾아 목가적으로 오순도순 살기 위한, 필수적인 발악이다.

그래서 오늘도 싸운다. ●

by 파이터 자몽

Another Brick in the Wall.



Teachers leave them kids alone



Hey! Teachers! Leave them kids alone!



All in all it's just another brick in the wall.



All in all you're just another brick in the wall.





만화 비상소집

문제가 집단 '육상반'에는 상정체성과 성별정체성, 피부색과 장애 여부를 넘나드는 '비정상' 학생들이 가득하다. 정상 학교, 정상 학생들이 그들을 내치고 왕따하는 이 사회의 속성은 학교라는 작은 공간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학교에 대한 트라우마들이 각각의 캐릭터로 살아있는 '육상반' 학생들이 학교에서 친구를 만나고, 모험하며 공포를 극복하고, 함께 저항하고, 손잡고 헌판 춤을 추며 정상 사회를 비틀어낸다.

학교담장
넘어보기



영화 우리학교

재일 조선학교인 '우리학교'에서는 '교육'의 의미가 다르다. 자긍심을 가지는 것, 타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행하는 것, 자신의 정체성을 동반한 경험과 그 경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비롯하여, 서로 함께 사는 방법을 배우는 이 공간은, 그들의 공동체, 그들 공동체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경쟁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을 주된 목표로 설정하는 '실'으로서의 공간인 여기의 학교를 돌아보게 된다.

영화 쇼강 패밀리

한부모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경순과 수림 모녀에게 학교는 교묘하게 비정상의 낙인을 찍는다. 입학하자마자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과 기혼을 쓰도록 하고, '아버지와 함께 하는' 과제를 내는 학교는 정상 가족이 대물리기를 강화하는 강력한 권력기관이다.



영화 이반검열

레즈비언 청소년들이 자신의 목소리로 읽는 학교는, 철저한 가면을 써야 하는 공간이기도, 아무도 없는 교실에서 눈물을 쏟아내도록 하는 기억의 무게가 누르는 공간이기도, 규제와 억압의 공간이기도 하다. 이성애 중심의 사회 안의 비이성애를 배제하는 학교는 그녀들에게 드러낼 수 없는 분노, 혹은 저항이 시작되는 공간이다. ●



학교담장

넘어보기



‘진보’ 꺼플 속에 숨은 전 근 대 성

무엇보다도 중세적 도제제도의 면모를 띤 교수와 학생의 관계는 상명하달의 원칙이 엄격히 지켜지는 사적인 주종의 관계지, 공적이고 평등한 현대적인 동료 지식인의 관계는 결코 아니다. '교수님'이 틀어쥐고 있는 '성적'이라는 공적인 권력도 학생에게 충분히 무섭고 위협적이지만, 학생을 불러 '혼내줄' 수 있는 그 사적인 가부장적 권력은 학교를 중세적 '아문'으로 만든다. 호통을 치시는 교수님 앞에서 끝까지 본래의 소신을 지키고 굴복하지 않는 학생은 운동권 중에서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경찰의 폭력 앞에서 후퇴하지 않았던 젊은이들이 교수님의 고함소리를 듣고 움츠러드는 모습을 한두 번 본 게 아니다. 그리고 '백'과 '커넥션'만 통하는 한국 사회에서, 그 전지전능한 교수님에게 '혼나는' 것보다도 그 '눈밖에 나는' 것이 학생에게는 더 두렵다.



이를 흔히 '유교적 사제관계'라고 보고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하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경우에 학생이 그 지도교수의 '도덕'을 유교적으로 '홍모'하기보다는 실질적 '영향력'을 수지타산에 맞춰 '평가'하는 것이다. 유교적 도덕주의의 상호 존중, 군사부일체 사상의 잔재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지만, 여기에서 서구적 '학과'를 대신하는 폐지리적 '피라미드'의 형성 원칙은 보통 도덕과 무관한 연명, 권력의 서열이다. 호화로운 '사은회'와 '세배', 만날 때마다 절하는 등 유교적인 형식이 풍부하게 잔존하지만, 한국적 '피라미드'의 내용을 "교수가 퇴직하면 그 논문의 인용건수가 갑자기 줄어든다"는 명언이 가장 잘 표현한다.

학부생과 교수의 관계에서도 다분히 '절대적 권력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의 논리

학부생과 교수의 관계에서도 다분히 '절대적 권력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의 논리가 작용하지만, '학계에서의 입지'가 문제되는 석박사과정생들은 심지어 지도교수의 대필 요구를 고맙게(?) 받아들여 '써줄수록 잘 시켜주겠지'라고 여길 정도다. 보편적인 진리나 인권, 학리 등을 위해 봉사하기보다는 '영향력' 많은 사람에게 매달려야 '밥그릇'이 보장된다는 것은 한국 학계 '새싹'들의 '생활의 지혜'가 되었다.

가 작용하지만, '학계에서의 입지'가 문제되는 석박사과정생들은 심지어 지도교수의 대필 요구를 고맙게(?) 받아들여 '써줄수록 잘 시켜주겠지'라고 여길 정도다. 보편적인 진리나 인권, 학리 등을 위해 봉사하기보다는 '영향력' 많은 사람에게 매달려야 '밥그릇'이 보장된다는 것은 한국 학계 '새싹'들의 '생활의 지혜'가 되었다. 진보적이고 도덕적인 교수를 만난 '행운아'도 없지 않지만, 보통 이론적으로 권위주의적 체계를 부인하는 석박사과정생들은 바로 그 체제의 말단 구성원으로서 치열한 '충성 경쟁'에서 이기도록 사력을 다해야 한다.

학생과 교수의 관계에서 사적인 연속성이 강한 한국 대학에서는 학생간의 관계도 평등 이념이 아닌 전근대적인 연명, 학번 서열과 '선배'에 대한 복속을 주요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것도 유교적인 존장 사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논객들이 많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 공적인 사회적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적인 호혜적 상호 의존 관계만으로는 개인에게 사회 진출과 위치 안정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인맥'을 재학시절에, 본격적인 '생존투쟁'을 벌이기 전에 쌓으려는 노력일 뿐이다. 즉, 유교적 이념에 따라서 전통적으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는 선배들에게 일단 '잘 보이고', 성공한 선배와 나중에 '격이사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 한국적 선후배 관계의 여러 논리 중 하나이다. 형식이야 유교에서 따온 것이지만, 내용은 다분히 정실 자본주의의 산물로 보인다. ●



박노자, 당신들의 대한민국 중

기분이 나빠야 하는 데 아무렇지 않다
면, 이런 이상한 거다. 화를 내야 하는
데 그냥 돌아선다면, 이것도 이상한 거
다. 우리에게 이런 류의 이상함을 강
요하는 현실이 있다. 그 현실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고 이것이 마칠 파급효과
를 예측하고 어떤 것을 행동으로 옮길 지 모색하는 것이 삶이다. 내가 그럴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모든 삶을 다 살아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번 해보자는 거고 같이 한번 살아 보자는 거
다. 이런 일이 있다 카데요, 가 아니라 이런 뻘을 얹어 (혹은 경사가) 있다 카데요, 툴루랄라 (혹은
썩썩대며) "찌어기 물으로 가 봅시다", 카는 거다.

바보노의 정·세·판·단

교육환경은 님들땀에 나빠지는거그등;

공정택이란 이가 강남구에서의 압도적 지지율을 발판으로 교육감에 당선이 되고 MB의
교육정책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 (이놈의 MB는 어딜가든 나오는구나... 휴우) 밑도
끝도 없는 전교조 죽이기, 자신의 선거 고문단에 사회 저명인사들 허위로 기재해놓고 타이핑
잘못했다고 우기기(한승헌 변호사, 손숙씨 등이 피해자임.), 믿기지 않아 기억도 안 나는 무
표율, 기타 등등의 선거 과정이야 그렇다 치고(그렇다 치기엔 너무 엄청난 것들이 많지만 시
국이 하수상하니)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해쳐먹고 가겠다고 그렇게 사정하던, 교
육감 다시 시작하자마자 득달같이 진행하려고 용을 쓰는 그것들을 시급히 확인해보자.

서울시 교육청은 얼마 전 2010년부터 '학교선택권'이라는 것을 도입하기로 했다한다. 이에
발맞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교별 학업성취도를 3등급으로 나누어서 공개하기로 결정했
단다. 전국 수백만의 아이들의 머릿속에 똑같은 것들만 채워 넣는 것으로 모자라 세 등급으
로 나누는 이유는 누가 봐도 뭘까? 교육청의 언어로는 '학교선택권'.

이제 전국의 모든 학교와 아이들은 초6, 중3, 고1이 되는 해 10월이면 평생을 자신을 따라다
닐 지도 모를 '딱지'를 얻기 위한 시험(학력평가)에 들어야 한다. 모두들 생각해보자. 사교육
비는 엄청 늘어날까, 아니면 줄어들까? 가계부담은 매우 늘어날까, 아니면 줄어들까? 지

역별, 소득별 학력차는 대폭 늘어날까, 아니면
줄어들까? 아홉 되면 정몽준씨처럼 정몽준 한나라당 국회의
원은 버스가 70원이라고 하여 물의를 빚었고, 민생경제를 전혀 모른다는
비판을 받아내기 위해 청소년 카드로 버스를 타는 가상친화관 퍼포먼스
를 벌인바 있다. '정말로' 현실을 모르는 것이라고 박
애 볼 수 없다. 아니면,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나.

교육(과학기술)부가 원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
가? 아니, 국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공정택
이 지난 교육감임기 때 했던 만행을 보면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명확히 나온다. 서울 강남구
에 임대주택을 지으려하는 서울시의 계획에 반발하여 '저소득
층 아이들이 많으면 교육환경이 나빠진다.'는 공문을 보낸 것이다. 탄 건 다 차치하고(차치
하면 안되는데 시작하면 너무 길어져서...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왜 강남구에 형성된 거
대 사교육 시장을 해체하려는 노력을 국가는 하지 않는가? 그대로 두면 뻔히 학벌도 재생산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두고 보기만 하는가? 그러면서 그 현실을 똑바로 바라본다며 학력평
가를 실시하고 등급을 매겨 공개한다는 계획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교육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규직 교
사를 뽑지 않아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터무니없이 많기 때문이며, 늘어나는 비정규 교사들로
교사들이 격무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능력주의와 학
력주의의 허구적 이데올로기를 심화시키면서 더욱 견고해지고 있는 학벌체제와 그것을 뒷받
침하기 위해 갈수록 황당하게 바뀌는 입시정책 때문이다. 학력이 낮아지는 것은 획일적 교육
방식 때문이지 서열을 덜 매겨서가 아니란 말이다. (그 때문에 너희같은 것들이 지배를 유지
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교육환경은 당신들 때문에 나빠지는거다. 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오는 것은 전
교조가 선동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이다. 공부할 하기 싫다는 것이 아니라 좀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싶다는 것이다. '잠 좀 자자, 밥 좀 먹자'는 구호를 보고 애새끼들이 게을러 터
졌다고 말하는 당신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잠을 자고, 밥을 먹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잊은 것이다. 당신이 사람이 아닌 것인가, 학생들이 사람이 아닌 것인가? 나는 모르겠다, 그
런 삶을 견디며 살아온, 혹은 견디고 있는 우리도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어이없는 짓거리들만
하고 있는 당신들도 사람이 아닌 것 같고 해서 말이다. ●



그 모오든 이야기,
썩 다 먹어치우고

먹.보.올.림.픽

박태환이 금메달을 땀다. 짹짹! 완전 대단하다! 축하한다. 그간 귀엣을 무지마치한 훈련과 끝 없는 자기와의 싸움, 그리고 결국엔 최고의 자리에 오른 기쁨으로 박태환 선수의 가슴이 터지는 않았을 지 걱정이다. 근데 이 금메달을 본인보다 더 좋아하실 분이... 아니 아예 자신이 딴 걸로 착각하는 분이 한분 계신다. 시민들의 다크씨를 강화에 일조하시우고, 불대포를 뿌려 열대야를 물리 치우시고, 그리하여 마침내 '춥불집회의 배후세력'에서 '요정'으로 새롭게 탄생하신, 이름하여 '장서 (장서씨 張氏의 명명)'이다. 이 분만큼 올림픽을 기다린 이가 또 있을까? 그 분이 말씀하신 인내의 시간, 인내의 끝이 곧 올림픽이었을텐데 말이다. 불법행위를 잠자기보다 좋아하는 '좌팔 시위대' 들을, 교통 질서를 어지럽혀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그 무지마치한 폭도들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더위도 아니고, 불대포도 아니며, 전경도 아니었다. 그들을 진정시킬 수 있는 것은 단지 '금메달', 그리고 '대한민국'. (그때 MB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다.)

인터넷이고 신문이고 난리가 났다. 어떤 선수의 금메달이 얼마나 값지고, 어떤 선수의 동메달은 하지만 금메달보다 더 빛나는지를 이야기하기에 바쁘다. 가난하고 어려웠던 지난날이었지만 그러나 나는 살아가리라, 억센 주먹으로 던지고 일어나 인간승리, 감동의 휴먼드라마를 일궈낸 태극전사들의 이야기를 켜 끝이 축축하도록, 아니 눈물이 방울방울 키보드를 두드려 써내려가는 기사들은 이제 곧 아침 토 크쇼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중국 본토에서 중국의 편파적 판정에 대해 대놓고 비판한 한 선수는 순식간에 민족주의 투사가 되었다. 올림픽 개막식을 위해 거대한 메스게임을 준비한 중국인 청년들이 당한 착취는 노동력 착취와 국가의 폭력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야만적 중국인들의 폐악'으로 연일 포털사이트 메인에 오르고 있다.¹⁾

올림픽,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 평화와 화합의 장, 다 개를, 제대로 된 집 한 채 없이 가난하게 살고 있던 사람들을 보상금 및 훈주고 꽃아낸 자리에 지어진 경기장에서 어찌 평화를 논할 수 있는가? 길거

리 미관에 좋지 않다며 다 꽃아낸 노점상들을 보며 어찌 축제를 말할 수 있는가? 왜 선수들이 인간 드라마를 써가며 힘들게, 어렵게 운동하는지, 어찌하여 그럴 수밖에 없는지는 왜 설명하지 않는가? 선수들이 금메달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왜 말하지 않는가? 소위 말하는 비인기 종목의 선수들의 삶은 왜 말하지 않는가? 같은 비판이라도, '당신의 심판 부당하오(로 중국인심판)'라는 말과 '당신이 하는 짓은 잘못되었소(로 MB)'라는 말은 어찌 그리 다르게 그려지는가?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억압과 착취는 올림픽 메스게임 참가자들이 받은 착취와 도대체 얼마나 다른가?



올림픽으로 인해 쏟아지는 그 많은 (하지만 왜곡되고 삭제된) 이야기들은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다 먹어버렸다. 판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것은 당연하다. 좋은 날엔 좋은 이야기만 해야지, 우울한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 기분을 다운시키면 안되는 거다. 그래서 춥불집회 이야기도 가급적 하지 않고, 기쁨 분의 조합원들이 거의 70일이 다 되어 가는 단식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도 하면 안된다.²⁾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



제해야 하는 거다. 남들 잘 될 때 진심으로 축하해줄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도리 아니겠는가? 아니, 생각해보니, 심지어 우리가 남도 아니지 않은가? 조국과 민족의 영광의 시기를 함께 맞고 있는 한민족이 아니던가!

한민족이여, 금메달 땀으니 우린 선진국이다.(사실 금메달 처음 딴 것은 꽤 오래전 일이었으나 최근에 MB님이 다시 선언하셨다. 금메달 땀으니 우리도 선진국이라고.) 생각해 보면 상당히 논리적인 말이다. 이제 체구나 체력적으로도 서양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밀리지 않고, 선수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훌륭한 시설들도 갖추었다는 것. 그건 곧 우리나라가 잘살고 있다는 말이지 않겠는가? 원래 선진국이 그런거다. 수영장 없는 초등학교가 대부분이라도, 금메달 따면 수영강국인거다. 비정규직이 아무리 많아도, 삼성이 핸드폰 좀 팔아주면 선진국인거다. 자, 이제 아시겠는가.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호기이다! 분열분자들은 루른 바다 저 멀리 보내버리고 힘을 합쳐 으샤으샤 순풍에 돛단 듯 이왕 선진국 된 거 확실하게 좀 해보자!

아 근데 어찌지? 중국이 '대한민국'보다 금메달 훨씬 많이 땀는데.....

- *1) 올림픽 덕분에 우리 다시 하나 되었다고 좋아하는 남들아, 근데 명박이랑도 하나될머임?
- *2) 연고전이 다가오는구나.

¹⁾ 베이징 올림픽 메스게임에 참가한 2008명의 젊은이들이 연수를 위해 1년간 베이징 인근 군부대에서 합숙을 하며 하루 16시간씩 매우 열악한 조건 속에서 연수를 해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그 대가로 월급 대신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²⁾ 이 글이 쓰인 당시에 이미 70일이었으나,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계속 이 더러운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 글이 여러분에게 읽힐 즈음에는 70일 최고로 훨씬 넘는 기간을 단식 중이실겁니다. 그분들이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고 투쟁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이 싸움의 이유를 여러분은 그냥 넘어가 지 않길 바랍니다. 제발, 내내의 사과 3회가 나온 바로 지금, 그대들의 투쟁이 그리고 우리의 투쟁이 순리로 끝나야함을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상어의 애완동물 해방론〉은 1호에서는 밥, 2호에서는 꼬맹이로 주제를 잡아서 써왔다. 이번엔 뭐로 쓸까. 특집 주제가 학교니까 애완동물 훈련소에 대한 이야기라도 써야 하나, 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애완동물 해방론의 마지막 글이 될지도 모르니까, 지금껏 살아왔던 물분을 풀어보고자 한다. 지금 당장 해방을 외치는 것도, 거리로 뛰어나와 행동을 하자고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껌등으로도 듣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이다.

상어의 애완동물* 해방론

* 이 글은 거대한 이론은 아니다. 이론이라고 하기에는 나의 지식은 한없이 부족하여, 글은 대충 그 반박함을 드러낼 것이다. 이것이 동물 해방론이 아니라 애완동물 해방론이라는 명칭으로 시작하는 것 역시, 나의 동물과의 관계라는 것이 우리집 고양이 정도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거칠게 동물을 야생동물, 애완동물, 가족으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난 가족은 키워본 적도 없으며, 야생동물의 상황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조차 못한다. 그래서 그저 귀여워서 아무 생각 없이 돈을 주고 새끼 고양이를 '사' 왔으며, 동등한 생물체로서 보다는 내가 '키우고' '사랑하는' 대상으로서 고양이를 바라보아왔던 나날들에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리고 반려동물이라는 명칭이 생겨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사랑하고 가지고 노는 동물로만 바라보는 지금 사회의 시각에서는 애완(愛玩)동물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더욱 명확한 듯 하여, 이 글에서는 비정치적이고 동물 위압적인 애완동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 글을 읽으면서 당신의 애완동물을, 혹은 주위의 애완동물을 당신도 다시 한번 바라봐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동물을 해방한다는 것은 사람과는 관계없는 일이다. 애완동물 무시하면서도, 원하는 만큼 동물들을 잡아먹으면서도,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고, 해방 사회를 만드는 운동을 할 수도 있다. 나랑 상관없는 문제라고 명확하게 단언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도 열심히 살아 가고, (헬스장에 가거나, 집회에 가거나, 돌 다에 가거나, 어쨌든) 운동하고 있는 당신들도 있다. "지금 당장 닥친 문제가 있는데, 뭐라고 하는 거야"라는 표정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더라.

정말 수없이 목구멍에서 울리고 있는 말은 '하지만, 말이다.' 그런데 굳이 '하지만'을 붙여야 할까. 운동에 서열을 가르치고, 생명에 서열을 가르는 지금의 풍토 속에서, 미약하게나마 동물 해방을 꺼내든 것은 들리지 않는 허무한 외침인가. 인간의 자유와 해방을 외치면서도, 그 범주에 흑인이 들어간 것도, 여성이 들어간 것도, 성소수자가 들어간 것도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다. 애완동물이 인간의 범주에 들어갈 일은 없겠지만, 자유와 해방이 인간의 것만으로 통용되는 지금 사회가 얼마나 편협했는지에 대한 논의는 멀지 않은 시일 내에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오랜 세월을 거친 인간의 변화 과정은 문명이라고 이름 붙여졌다. 그리고 문명은 소위 '자연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생존을 위한 구조도 함께 변화시켰다. 인간은 필요 이상의 생명을 소비하고, 소유하려 한다. 소비되고 소유되는 생명은 최소한의 권리 없이 마구 잡이로 죽어나간다. 문명이라는 이름을 만들고, 그 안에 만들어놓은 생명에 대한 서열이 당연히 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7~8년전쯤 프랑스 여배우 브리짓 바르도가 굶어 죽어가는 아프리카 들개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코웃음을 치며 비난했다. '동족'으로서 굶어 죽어가는 아프리카 대륙의 사람들을 우선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그녀에 대한 비난은 정당화되었다. 인간이 아닌 생명은 소유되거나 소비되는 존재라는 관념에 대한 한 치의 의심도 없었다. 들개도 들개가 먹을 사료도 모두가 인간의 음식으로만 보이니, 브리짓 바르도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게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인간 중심적으로만 살아갈 수는 없다. 결국 모든 해계모니들은 시간이 흐르면 스스로 문제점들을 내보이게 되어있다.

최근에 나가본 촛불 시위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구호 중에 하나가 '미친소, 너나 먹어라'다. 광우병 파동은 인간이 그것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지금 표면적으로 인간들이 자신의 일이라고 느끼는 문제일 뿐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와 함께 외치는 '너나 먹어라'는 결국 '한국인'만은 먹지 않겠다는 편협한 민족주의로 밖에 회귀되지 않고, 인간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권리와 함께 외치는 '너나 먹어라'는 '미친소'를 만들어낸 책임을 회피하는 것일 뿐이다.



'미친소, 너나 먹어라'는 결국 '한국인'만은 먹지 않겠다는 편협한 민족주의로 밖에 회귀되지 않고, 인간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권리와 함께 외치는 '너나 먹어라'는 '미친소'를 만들어낸 책임을 회피하는 것

일 뿐이다. 더 많은 '고기'를 더 '값싸게' 먹겠다는 자본과 인간의 욕심이 소의 기본적인 생존방식을 뒤엎어버렸기 때문에 탄생한 것이 '미친소'다. '난 안 먹겠다. 너나 먹어라!'가 아니라, 동물의 생존 방식을 임의적으로 변경시키는 인간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고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 바로 광우병 파동이다.



당신은 지금 동물 해방보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 당신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관계된 것'을 위해 나아가고 있을 뿐이다. 나와 '덜 관계된 것'에 대한 억압을 참신하고, 재미있게 즐기면서, 스스로 귀를 막고 있을 뿐이다. 자연을, 여성을, 흑인을 통제하면서 발전해온 인간 역사의 문제점은 흑인을, 여성을, 자연을 해방시키면서 풀어갈 수 밖에 없다. 어느 자리에서 멈춰선다면, 그것은 그 선포지의 인간에 대한 해방이 아니라, 그 선포지에 있는 인간에 대한 혹은 자연에 대한 억압으로 머무를 것이다.

오늘은 애완동물이 아니라 동물로, 해방론이 아니라 해방에 관련한 단상으로 정리가 되버렸다. 애완동물 해방론은 글을 쓰고 있는 나에게 아직 진행초기 상태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글을 쓰는 중간 중간에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거듭 다시 생각해본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생각해보면서 가끔 '좀 빌어볼까'라는 생각도 한다. '제발 생각하고, 고민하자.'고, 당신이 먹는 고기 한 점이 생명의 박탈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한번쯤 생각하고, 동물병원 너머에 있는 애완동물들이 귀여운 게 아니라 간혀있는 것임을 깨닫고, 한번만 먹어달라고 웃고 있는 참치의 모습을 그려내는 그 광고가 얼마나 추악한가에 대해 비판해보자. 거기서, 우리 다시한번 만나서 생각해볼까. ●

by 이만 마칩니다. 상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고,
불안한 함초름이 일어 지치고,
그런 트라우마를 만날 때가 있다.
하지만 그 트라우마는
때론 가끔 종종 자주 찾아온다.
스스로에 의해 사라지기도 하고,
주위의 공감 없음에 의해
모습을 숨기고,
어딘가에 숨어서 나를 다독여준다.
트라우마는 그 본질을 마주했을 때,
그것에 분노했을 때,
극은 상처가 아닌 평화의 힘이 된다.
오늘의 트라우마 :
마주보고, 분노하고, 변화하기

오늘의 트라우마



버스 정류장이다. 나를 바라보고, 부러 눈을 돌렸다가, 호기심을 못 이겨 다시 바라보는 시선을 느꼈다. 고등학교 때의 교사. 그 어정쩡하게, 집요하게 따라오는 표정에 파밀러 단숨에 억압의 공간에 떨어진다.
너의 말은 이상해. 너의 기호는 이상해. 너의 이상함은 확실한 가십거리야.
너는 권리가 안 돼. 너의 행동은 부적절해. 너는 후회하고 부끄러워하게 될 거야. 네가 어떤 인간인지 기억할거야. 나를 짓눌러 한없이 작게 만들던 시선과 나를 재단하던 수많은 목소리가 귓가에서 한꺼번에 터진다.
못 본 척, 재나치는 옆얼굴이 따갑다. 아닌 척 했지만 손에 땀을 쥐었다.



교복을 입어야 하는 사람들과 교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의 학교

이유가 없는 무서운 이유로
나의 뺨지는 비뚤어진 것이 되었고
나의 머리는 항아치 의 머리가 되었고
나의 가방은 비정상의 가방이 되었고
나의 신발은 반항의 징표가 되었다.

그이유가 없는 무서운 이유로
당신은 나를 몰아내었고
당신은 내 머리에 테니스채를 들어대었고
당신은 내 가방과 신발을 빼앗아 갔다.

그래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세상이 감요하는 추억과 함께 교복을 버렸다.

졸업하자마자 내가 제일 먼저 한건, 교복을 버려버리는 것이었다. "그것도 추억인데 내비두지 그래"라는 친구의 말에 "난 교복이 싫다" 라는 싸한 영제만을 남긴채 그냥 버려버렸다. 누군가에게 추억이 웃이겠지만, 최소한 나 예겐 '괴롭힘'의 상징이었다.



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이후로 드디어 10여년 만에 쟁쟁, 나는 초등학교 때는 물론 유치원 때부터 원복을 입었다) 관한 복장으로 매일 매일을 자낼 수 있게 원컨 나에게 정말 작은 해방이었다.
그러던 어느날 나는 백양로를 건다가 차를 팔았는데 온갖 학생들이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없었는데 내 입에서 욕이 튀어나온 것은 학생부장의 얼굴과 테니스채 사이로 빠져나온 머리를 밀리던 친구와 뺨지를 사러 매정으로 뛰던 나와 가방을 뒤적이며 놓고 나온 넥타이를 하염없이 찾는 또 다른 친구의 모습이 떠올라서 았을 것이다.

사실 난, 추억하게 따로있지 라고 생각하긴 했다. 휴. ●



딱히 특별할 것 없는
너와 나의 이야기,
사이좋거나
나쁜 사람들의,

 **CYWORLD** 사이월드

지금 이 순간, 공간 속에 내가 있다. 너무도 일상적인 공간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사건이 되기도 하고, 너무도 뻔한 사건과 맥락들이 공간을 타고 새롭게 다가오기도 한다. 경계를 알 수 없는 혼란과 뒤범벅의 순간과 감각, 그리고 그 공간.

미니홈피 메인화면, 일촌평, 방명록, 하루방문자 수 등으로 홈페이지 주인의 사회생활을 가능할 수 있음. 사진첩 폴더명만 봐도 어디서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가 뚜렷이 드러나는 공간. 자신을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자신을 '보여주기' 위한 공간으로 대부분 작용함.

늦은 밤, 더운 바람을 뿜어내고 있는 무기력한 선풍기의 고개를 살짝 돌려놓는다. 자연스레 컴퓨터를 켜고 습관적으로 싸이월드에 접속한다. 아라, 일촌 신청이 왔다. 이미 추억은 방울방울 티쳐버린 초등학교 동창이다. 별 생각없이 수락버튼을 누른다.

그 아이의 미니홈피의 일촌평은 스크롤을 해야 한다.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말풍선이 미니미 머리 위에 동실 떠있다. 약간의 보정이 당연히 들어간 메인 사진에서 그는 45도 각도로 나를 바라보며 웃고 있다. 너무 자주는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함이 분명한 그의 사진첩은 본인 / 가족 / 학교 생활 / 종교모임 / 수집한 이미지 / 여행사진 순으로 정렬되어 있다. 그는 얼굴이 단정하고 웃는 표정이 편안하고 밝다. 가끔 정장을 입은 사진도 있지만 대부분은 셔츠 있는, 나이에 걸맞는(?) 가격대의 옷차림을 하고 있다. 가족들은 여전히 평안하고 가끔 여행을 다니기도 하는 것 같다. 어머니는 무한한 사랑의 표정으로 늘어난 주름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름다우시며, 그의 존경하는 아버지는 말씀을 아끼는 타입이지만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임에는 변함없다. 그는 명문대를 다니며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한다. 친구들에게 신망받는 타입이고 주위 사람들에게 사진을 많이 찍히는 타입이다. 생서읽기 모임을 열심히 나가며 봉사활동에도 지대한 관심이 있다. 얼마 전에 애인과 헤어졌는지 사랑의 아픔에 대해 서술한 글과 사진도 몇 개 올려두었다. 재작년 여름에는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다녀왔고, 지금은 방학마다 아름다운 우리 국토 곳곳을 돌아보기 위해 길을 떠난다. 아, 취미는 사진이다. 방명록은 비밀로 남겨주길 부탁하고 있다.

갑작스레 마주친, 마주친 것치고는 너무도 많은 것을 알게 된 초등학교 동창의 일상은, 행복하고, 상투적이다. 하지만 그 상투적인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사실은 얼마나 관념적인지! 이 상투적인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 이 아이는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을까. 관념 속에 자신을 끼워 맞추기 위해 무엇을 보지 않고, 무엇을 듣지 않았을까.



오늘도 사랑 갈무리 - 그래 어디 한번 물어보자!

모름지기 연애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인데, 문제는 연애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란 말입니다. 헤어진 애인이랑 연락을 한다, 만나, 연애를 끝낼 때 정리발언을 한다, 만다를 두고 놀이터 텀이 박터지게 싸우던 끝에 결국 이 지면을 빌어 네명 모두 물어 앉아 머리고등이 잡아보기로 하였으니, 어디 한번 물어보세~ 알~썩!

(지난 연애에 대한 사생활을 보호하고 부끄러움을 감경하기 위하여 가명을 썼습니다.)



원지모를 연애 -
치고 빠지기로

끝나버린 노래를 다시 부를 순 없어요.
후렴구도 안 돼, 허밍도 안 돼.

연애가 끝났는데 왜 그 사람과 소통해야하지?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데 왜 그 지난한 과정을 감수해야 하지?

나의 연애는 언제나 시작하면 몰입이고 끝나면 단절이었다. 모든 기억을 다 소진해버리고 아무 것도 말하고 싶지 않아 울조리며 그렇게 텅 비어버린 채로 끝내곤 했다. 청세판단 따위는 없었다. 정확히는 연애를 정리하고 관계를 추스릴만한 기억도 의지도 없었다. 연애를 끝내자는 말을 꼬집어내는 것은, 그저 나쁜 년으로 남는 시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으려는 잔꾀의 결과였다. 그렇게 그냥 다 회미해지도록 방치하고 시간이 아주 오래 흐른 후에야 얼핏얼핏 피상적으로 기억해내곤 했다.

그래, 난 지쳐있었다. 내가 상대방에게 '알아서' 제공하던 그 당연한 달래기, 당연한 보살핌, 당연한 자상한 들어주기와 적극적인 지지보내기에 지쳤다. 물론, 상대방을 지지하는 것, 그 사람이 다른 이들에게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것, 아픈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보듬는 것은 서로를 아끼고 있다는 상태를 표시하는, 사랑을 공유하는 행위다. 그래도, 나는 나를 멈출만

한 적당한 때를 알아야 했다.

나는 지쳐버렸다고, 나는 힘들다고, 아마도 그런 말을 하는 데에 서툴렀다. 말하지 않는 편이 나에게 더 마음이 편했다. 내가 힘든 것을 자기 탓으로 느끼고 상처입거나, 내가 비난한다고 생각해서 역으로 공격할 것이 두려웠다. 설명을 하고 서로 이해하기 보다는 차라리 입 꼭 다물고 나쁜 년이 되는 편이 나았다. 나는 독한 년이니까 단절도 곧잘 한다.

나에게 대담을 요구하는 그들이 싫었다. 말을 걸고, 말을 하라고 요구하는 모든 얼굴들, 목소리들을 피해야만 했다. 그래서 만나기를 꺼리고, 전화를 받지 않았다. 정리할 수도 없고, 정리하기도 싫었고, 방이 태세만을 견고하게 취했다. 그러다보니 '그만 생각' 하는 것이 '정리'라고 착각하기도 했다. 나에게 시간이 필요한 건지, 다른 사람이 필요한 건지, 다른 공간이 필요한 건지, 가늠할 수도 없었다. 나는 그냥 쉬고 싶었다. 다시 생각'이라니, 다시 생각해보라니! 상상할 수도 없었다.

그렇게 얼버무리고 나서, 나는 내가 풀하다고 생각했다. 제멋대로 냅다 홀랑 차버리는 나쁜 년이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매듭짓고 봉해버렸다.



그리고,

이 글을 쓰겠다 마음먹고서 옛 연애를 생각하게 되었다. 지금의 나라면 서로 다치지 않는 대화를 할 수 있겠다 싶었다. 전화번호가 떠올랐다. 하지만 전화를 할 수는 없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의 연애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 경험을 어떻게 안고 살아왔는지 모르니까. 아마도 그건 상처였을 거다. 그리고 오래오래 아물지 않는 흉터였을 거다. 어쩌면 때때로 별떡 일어나게 만드는 악몽이었을지도 모른다. 많이, 아주 많이 울었을 거다. 그걸 후배라면 더 많은 시간을 분하고, 억울하고, 원망하고, 화내는 데에 소모하게 될 지도 모른다. 이 관계에 대한 나만의 망상, 잘 지낼 수 있을 거라는 판타지가 다시 한 번 그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다. 우리가 서로를 '하는 사람' 이던 시간은 이미 끝났다.

앞뒤 없이 달리는 내가 지금이라도 내릴 수 있는 판단은, 앵콜 요청은 금지라는 거다. ●

by 앵콜요청금지

* 지금 생각은 좀 다르다. 지금은,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고서 힘이 췌 나쁜 나를 떠올리면, 날 좀 씻기고 안아주고 싶다.

오해하지만, 연애는 '끝'이야.

연애는 불현듯 시작되고, 아금거리며 끝으로 다가간다. 연애의 대상은 대개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 서로의 생각이나 생활을 잘 알고, 취미가 비슷하거나 말이 잘 통한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대개 주변인들이기 마련이다. 같은 공간에서, 아니면 같은 활동을 하면서, 어쨌든 자주 만날 기회가 있는 사람들이 한창 잘 지내다가 특정한 계기가 생겨 연인 사이로 발전하기도 하는 것이 많은 경우인 것 같다. (내 경우인가)

그렇다고 해서 첫눈에 반하는, 운명같은 사랑을 믿지 않는다면, 그런 건 아니다. 길가를 가다가 옷깃이 스쳤는데 운명의 강한 제시가 둘 주변을 회오리처럼 몰아쳤으나 모르는 사람이니까 아쉬워하며 지나갔는데 알고 보니 조모임같이 하는 사람이더라는 류의 이야기, 저 이번 정류장에서 내려요, 했는데 얼씨구나 내려서 연락처를 주고받아 천생연분 해로하였다는 류의 이야기,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류의 이야기, 자주 가는 편의점 알바생이 자신의 담배취향을 기억하고 있어 그것이 연애의 시작이었다 등등등의 이야기들에 나는 코웃음 치지 않는다. 나는 생각한다. 그 연애들의 끝은 얼마나 깔끔할까?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된다? 그건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이다. 그 사람 보기 싫어서 내가 하던 일을 그만 둘 수는 없는 일이다. 그 사람과 같이 하기 싫어서 내가 있던 곳에서 나올 수는 없는 일이다. 그리고, 연애관계에서 별로였다고 해서 그 사람과 나의 연애가 아닌 관계까지 다 별로인 것도 아니다. 연애가 끝나는 마당에 그런 생각을 어떻게 다 하냐고? 당연히 할 수 밖에! 끝은 오래도록 생각한 후에, 많은 감내와 많은 갈등 끝에 오는 것인데,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어떻게 헤어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우며, 어떻게 끝내는 것이 이후에 서로 마주쳐도 어색하지 않

평가와 계획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관계가 변했다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싶지 않다는 것이고, 어쨌든 좋은 사람이기에 연애를 했으므로, 연애를 하는 것이 아니면 나쁘지 않은 사람이므로, 굳이 안 보고 싶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내가 그들에게 했던 잘못된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과함으로써, 정말로 정리를 하고 싶기 때문이다.

을 것인가에 대해서 나는 고민하고 또 고민한다. 그 고민을 바탕으로 한 서로에 대한 평가와, 이후 관계 구축에 대한 계획까지 같이 세운 후에 연애를 끝내려고 많이 노력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의, 앞으로 연애에 대한 '여지를 남기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서로 잘 맞지 않거나,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애 속에서 서로의 너무 많은 부분을 알았다거나, 상대에게 큰 상처를 주었거나 하는 것은 아무리 연애가 끝났다고 해도 영향을 준다. 그래서 연애상대였던 이와의 관계를 연애하기 전의 상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을 다시 구축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내가 아무렇지 않게 행동한다고 해서, 예전과 같구나, 혹은 마음이 남아있구나, 혹은 여지가 남아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다.

평가와 계획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관계가 변했다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싶지 않다는 것이고, 어쨌든 좋은 사람이기에 연애를 했으므로, 연애를 하는 것이 아니면 나쁘지 않은 사람이므로, 굳이 안 보고 싶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내가 그들에게 했던 잘못된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과함으로써, 정말로 정리를 하고 싶기 때문이다. 아, 쓰다보니 마지막 이유가 가장 큰 거 같기도 하고. ●

by 오해하지만



왜 뒤돌아보는 건데?

우선 연애가 3개월을 넘었던 적은 없어. 소위 말하는 100일을 치룬 적이 있던가, 싶어. 그 이유는 말이지, 난 애매모호한 감정 상태를 견디고 싶지 않아. 애매모호한 감정 상태는 몸이 직감적으로 느껴. 내장이 베베큐일 듯한 기분이지. 실제로 그러는 것 같기도 해.

연애를 하기 직전의 설렘도 그런 느낌을 주기는 하지만, 적어도 그건 애매모호한 감정 상태가 아니라 상대를 좋아하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잖아. 그리고 연애가 끝난 뒤에 느껴지는 것도 단순한 불행함 혹은 허무감이라는 단 하나의 감정선에서 생기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연애를 하는 도중에는 상대에게 두 가지 감정이 드는 순간이 생겨! 다들 알잖아, 보통 연애 삼개월 즈음해서 찾아오던 연애에서 벌어질 법한 문제들이 넘실되기 시작하고, "우리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는 류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생각만해도 내장이 꼬여, 관계에 의구심이 든다는 것은 상대에게 불만이 있다는 뜻이잖아. 그게 쉽게 풀리는 것이든, 아니든 간에 말이야. 그럴 때는 차라리 보지 않는 편이 나야. 하지만 상대가 보지 않는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따지고 들면, 그 때는 관계를 끝내는 편이 나은 거지. 문제를 풀기 위해 달려드는 상대에게 웃으면서 내 입장을 설명하고 좋게 좋게 헤어지는 광경을 상상하기는 힘들어. 문제를 드러내려고 할 때, 나는 이미 상대에게 반감을 가지고, 그 상황에서 내가 해 줄 수 있는 말은 한 가지 밖에 없지. 잘가, 다시 보지 말자. (물론 대놓고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는 것 같애. 그냥 이 정도의 무미건조함이라는 거지.)



연애를 '관계'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같아.
연애는 일순간의 감정이 증폭되는 것,
그리고 그 증폭이 유지되는 기간까지를 의미하는 거야.
'관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상대에게 집중을 하기보다는
그 감정을 느끼는 자신을 더 중요시하지,
하지만 상대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아.



이건 연애를 '관계'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같아. 연애는 일순간의 감정이 증폭되는 것, 그리고 그 증폭이 유지되는 기간까지를 의미하는 거야. '관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상대에게 집중을 하기보다는 그 감정을 느끼는 자신을 더 중요시하지, 하지만 상대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아. 1인 체제의 연애를 하는 건 아니니까, 상대는 그런 나를 평가할 수 있는 시선으로 보는 것 같기도 해. (그냥 불현듯이 든 생각이야. 이 글이 인쇄될 즈음에는 생각이 바뀌었을 지도 모르지.) 나를 평가하는 시선으로서의 상대이기 때문에, 관계가 틀어졌을 때는 죄책감이 많이 들 법도 한대 말이지. 난 죄책감에 시달리기 보다는 오히려 무의식적으로 연애에 대한 기억을 모두 잊어버려. 그러니까 마치 호박에 들어있는 모기 화석 같은 느낌이었을까. 뻔히 보이기는 하지만 딱히 모기를 만질 수는 없어. 그리고 잘 가공된 호박은 매끈매끈하지만, 사실 그 안은 매우 복잡하고 정리되지 않은 줄무늬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언제 쫄면대서 호박을 산산조각낼지도 모르는 모기가 들어있어. 그래서 그냥 마음 편히 바라보는 것도 힘들어.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애매모호한 감정이 치고 올라오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새 케이블 티비에서 쏟아내는 애인이 바람을 필 것인지 말 것인지를 테스트하거나, 둘의 권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하고 애를 쓰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저 심리는 화성인의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워져. 극복을 하거나, 위기를 넘어서 오래오래 사귀고 싶은 이유가 뭐야? 사귀는 건, 자연스럽게 상대를 좋아한다는 감정 아래서 이어지는 거잖아. 상대가 나랑 안 맞다고 생각되거나, 의심되거나, 짜증난다면, 빨리빨리 헤어지고 마음 편히 살면 되잖아. 죽어도 헤어지기 싫을 정도로 그 사람이 좋다면, 뭐 알아서 살 길 찾아가는 건 할 말 없지만 말이야. 쓰다보니 그렇게, 난 연애 정리 같은 건, 못하겠어. 안 하고 살아왔어도, 딱히 문제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난 짝퉁 통키할까봐. ●

by 통키

웃는게 웃는게 아닌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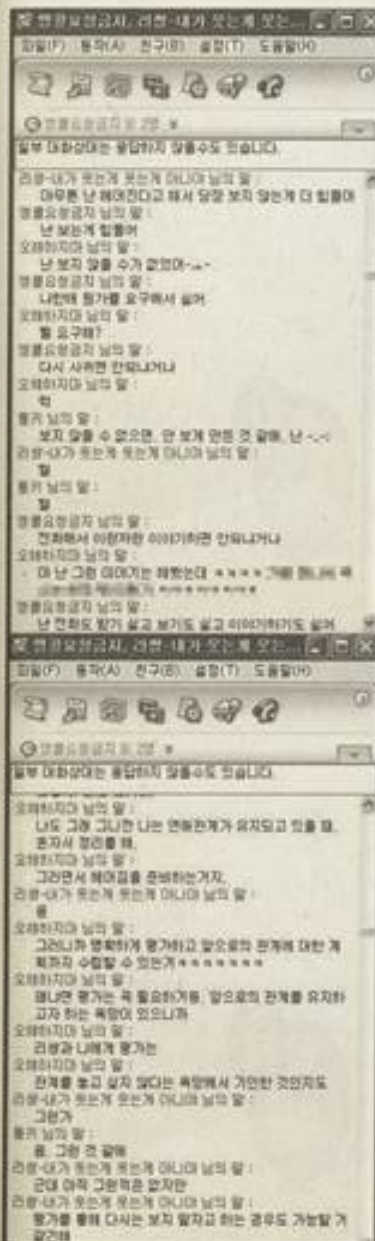
연애의 끝자락 즈음에 항상 어떠한 종류의 이야길 하게 되는데, 보통은 '그냥'이라거나 '어쩔수 없지'라거나 '언제한번'이라는 말 따위들로 범벅 되는 것 같다. 관계의 끝을 통보당하지 않기 위해서 혹은 그 통보들 안에서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조만간 한 번 보자를 이야기 하는 내가 웃기지만, 사실 좀 그런 내가 신기하기도 하지만 웃는게 다 웃는걸까.



내가 웃는게 웃는게 아닌 이유는 내 연애가 좋지 않았다거나, 그저 힘들기만 해서는 아니다. 나는 연애라는 관계에 몰입하다보면, 그 관계와 마주하기 위해 종종 내 자원들을 너무 쉽게 동원하곤 했다. 이 부분은 사실 스스로도 그리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그리고 너무 쉽게 '나'에 대한 연민으로 빠지기 쉽기 때문에 항상 경계하고 성찰하려고 하지만 그때그때 드는 생각들은 '참아보고 한번만 더 생각해보자'였다. 그래서 그런지 헤어질 즈음에도 나의 애씀이 깃든 관계들을 쳐내거나 끌어내는 건 도대체 쉬운 일이 될 수 없다. 때로는 한 번에 모든 걸 끌어내면 속 시원할 것 같았지만 그걸 실천하려고 하면 할수록 연애 관계에 대한 한순간의 깔끔한 청산이 절대 내 감정 노동의 끝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끊임없이 그 사람과, 또 그 사람의 주변과 마주치도록 세팅 되어 있는 그물망 안에서 뒤돌아 앉는 것은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했다. 뭐,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일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덜 힘든 길을 선택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러지 않는다. 그러지 않게 되었다. 연애가 막장에 이르고, 결국은 '끝남'을 남발하게 되지만, 그 순간에도 누군가는 그 말들이 담보하지 못하는 흘러넘치는 것들을 붙잡아야 했다. 끝남이라는 생각에 방심하는 순간 내뿜게 되는 가시 돌친 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극단적인 '종료'는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나는 연애의 끝을 얼버무리게 된 것이다. 그 대신 시간 좀 흐르고, '언제 한번'이 실현될 즈음에나 그 때 이야기들을 조심스럽게 꺼내보겠다고 다짐하는 거다. ●

by 내가 웃는게 웃는게 아니라, 라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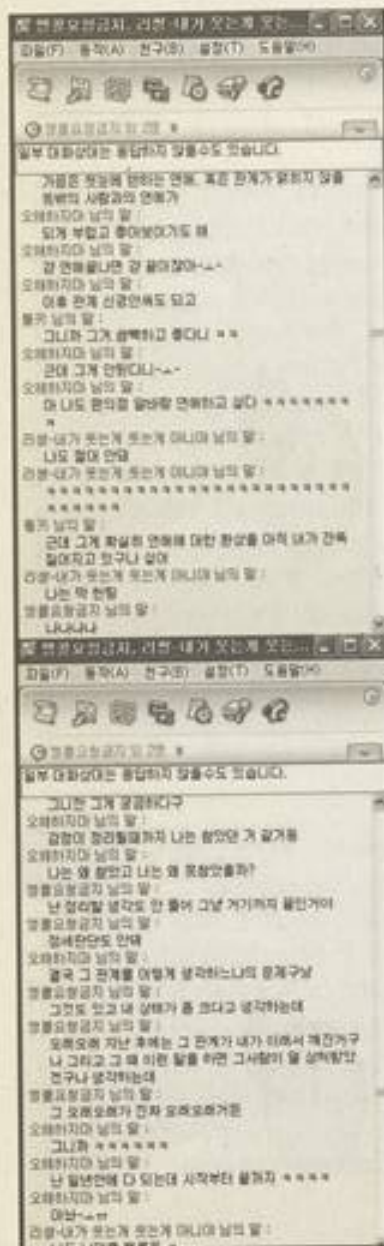
막간 대화! 연애의 끝?

오해
하지만

너무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통키에게 너무 공감하고 있었다. 지난 연애에 대해서 잘 기억도 못하고, 연애를 하면서 생기는 이중적 감정에 대해 견여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애인과 잘 이야기해서 풀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처음에 편익었던 라방보다 '연애' 그 자체에 관해서는 통키에게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끝은 판이하게 다르다. 한명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는 차근차근 뒤를 돌아서 옛 기억들을 꼭꼭 씹어 먹고 끈끈한 결과물로 뱉어놓고서야 '안녕'이라고 말한다. 물론 나의 주변 관계들이 좀 더 복잡미묘하여 내에선 정리와 평가와 앞으로의 관계에 대한 계획을 밟는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했었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연애피경에서의 정리와 평가에 대한 나의 강박은 '나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지 않아'가 가장 큰 이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분명히 소중하고 즐거웠던 기억이었을텐데, 헤어지고 나면 다 기억하지 못하고 그 연애가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처받기 싫어서 아예 기억을 삭제해버리는 나의 나쁜 습관은 아닐까?

통키

그래도 말이야, 오해하지마의 '바난'을 받으면서 좀 변화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은 했어. 근본적으로 정신과에 가볼까, 라는 생각을 하루에 5초 정도 하기도 했고, 장기간 연애를 나도 한번쯤은 해보고 싶다는 욕망이 꿈틀대기도 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마주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저런 확고한 연애상으로 살아간 것 아닐까, 라고 큰 반성도 했지. 그리고 끝은 꽤나 풀한 척 일하는 모양인데, 실사판으로 보면 좌절이잖아, (내 연애상 때문에 파종났을 지도 모르는) 전 애인들이 읽는 다면, 무슨 반응이 나올지 좀 무섭기도 하고... 근데 말이야, 그래도 저런 연애가 편하다.



영웅요청
금지

아이들 정리를 하고 있구나 나는 정리를 가장 한 단절만이 유일한 길이었다. 그런데 말이 지. 그런 내 조건과 상황을 빼고 무엇이 관계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었을까를 생각하면 관계가 끝난 후에도 정리를 하는 일이 올바른 것 같아. 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내가 연애를 극복한 적이 있던가? 그 기간 내에 충실하게 살던 나와 지금의 내가 단절되어버리면서 이어지고 있는 나에게 는 아무 대처할 방안도 마련해주지 못한 것 같아. 그래서 항상 지난 연애는 상처로 남아있어 몇 년이 지나도 다시 기억해낸다는 것 자체가 손가락이 덜덜 떨리는 일이라는 것은, 서로에게 지친 것과 미워하는 마음까지도 소용해내지 못한 나의 체력부족이 원인일까? 그 때의 내가 상대방과 더 대화하려 했다면, 조금 더 극복이나 치유에 가까워질 수 있었을까? 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어진 뭐가 답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의 나한테 상처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아이들을 들으면서 감없이 실망당하는 나를 보면서 놀랐어. 하하 확실해 진건 연애가 끝으로 갈수록 내 욕망과 내 생존이 부딪치는 부분이 많아지는 것 같아. 나도 통쾌해질까봐 굳어내고 싶지만 그러면 내가 너무 힘들것 같아. 용기가 안나는 걸까 그리고 보면 나는 항상 연애 시작과 끝이 없다고 생각했어. 어떤 사람과 알다보니 연애를 하게 되고, 또 연애가 끝나게 되니 그냥 다시 예전처럼 '하는 사람' 내지는 '그냥 친구' 정도로 돌아가게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 뭐 지금까지는 내 연애가 항상 그랬었다고 생각했는데, 따지고 보면 연애 전과 후의 관계가 일치할 수는 없는 거대라고. 그 차이점들에 대해 고민하는 게 귀찮았는지 두려웠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나. 영웅요청금지 한 말에 공감해. 나도 상처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왔어. 어쨌거나 저했거나 우리의 연애들이 그리고 앞으로 또 생길까 연애와 그 비스므러운 감정들과 그에 대한 반응과 태도들이 감없이 변해갈 것이라는 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난 연애 이제 좀 알래라는 생각을 해.

리쌍



드라마 들어보기



밤 10시에 TV앞에 앉지는 않지만, 어느새 다운로드를 누른다. 어떤 드라마가 유행하는지 그런 상관이 없다. 흥쳐본다. 누군가의 일상을, 그 일상이 조작된 것이든 아니든 상관은 없다. 나의 일상이 행복하고 심지어 엄청난다고 느껴질 때, 그래서 나를 돌아보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질 때, 드라마를 흥쳐본다. 타인의 삶을 바라보고 또 욕망하게 되는 건 일탈에 가깝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일탈로서의 흥쳐보기를 넘어서서 드라마를 들어보는 것으로, 스스로에 대한 성찰과 틈나기를 대신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살아남는 방식의 차이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 '스포츠라이트' (MBC, 김도훈 연출, 황주하, 최윤정 극본)에서는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진실하지만 사고뭉치인 어느 여기자의 이야기를 풀면서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별다른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드라마는 서우진(손예진 분)과 오태석(지진희 분)이라는 두 방송국 기자를 축으로 치열한 방송국 기자의 삶을 그려내면서 늘 그렇듯이 사회를 위한 소소한 '영웅들'을 만들어낸다. 목숨까지 걸면서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돌며, 권력을 가진 사회악과 싸우면서도 타협하지 않는 모습에서부터, 주변 사람들이 다칠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까지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드라마는 재미없고 별 볼일 없는 '히어로물'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라마가 흥미로운 점은 주인공들의 '사생활'이 편하다 편한 로맨스로 엮이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들이 그들을 둘러싼 여러 가지 소문들에 반응하고 해명하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덕분에 지루한 로맨스 파워로 구원 이성애중심주의를 전파한다는 혐의는 아슬아슬하게 피해갔지만, 여전히 주인공들이 소문들에 반응하고 그것을 해명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이분화된 성별과 가부장

적인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는 비판은 도저히 피할 수 없다.

드라마의 두 주인공인 우진과 태석은 많은 소문들 사이에 얽혀있다. 태석은 정치인인 자신의 아버지와의 관계와 과거를 둘러싼 소문들 속에 있으며, 그것은 상사들과 부하직원들의 입과 입을 통해 전해진다. 태석의 '울곧기만한' 기자정신이 아버지를 구속시키는 사건을 야기했고, 그 일로 회사에서 밀려났다는 이야기는 그것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태석을 규정하는 소문들로 작동한다. 우진 역시 양숙관계인 라이벌 회사에 다니는 오빠와의 관계 때문에 회사 기밀을 빼돌린다는 오해를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그녀의 엉뚱하고도 진지한 '기자정신'으로 인해 끊임없이 일하는 동료들과 상사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게다가 우연히 국가와 대기업이 꾸미는 거대한 음모에 휘말리게 되면서 음모에 가담한

사람들이 퍼뜨리는 괴소문에 괴롭힘을 당하기도 한다. 드라마가 진행 될수록 우진과 태석을 둘러싼 이러한 소문들은 그들의 '기자정신'으로 보상받기 시작하면서 오해와 진실로 분리수거 되지만, 이렇게 모든 소문들이 참과 거짓으로 분리 수거되는 동안 끊임없이 은폐되는 것은 그 소문 자체가 가지는 힘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어떤 이야기들을 진짜와 가짜로만 구분하면 된다는 이분법적 사고에 갇혀 누가 그 소문을 이야기하고, 그 소문의 대상이 어떻게 재현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막는다. 결국 기존의 권력관계를 재생산하고, 그 소문들에 내재된 근대 가부장제의 기획을 고착화시켜버리는 것이다.

태석은 끊임없이 자신의 능력을 바탕으로, 자신을 둘러싼 소문들과 자신에 대한 호명들을 스스로 바꿔나간다. 이 과정에서 태석의 언어와 태석에게 기대되는 것들, 태석의 경험들은 서로

상충되기 보다는 일치한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결국 '부정'이라는 일종의 가족이데올로기를 통해,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는 거대기업과 국가와의 싸움에서는 '정의의 승리'라는 영웅 이데올로기를 통해, 정당성을 획득하고 스스로가 '진정한 기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해 나간다. 위험을 무릅쓰는 모습에서 불타는 정의감을, 아버지와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의 비리를 폭로해버리는 모습에서 정의감을 얻어낸다. 겉으로는 강하고, 안으로는 약한 전형적인 가부장의 행상을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며 자신을 둘러싼 이야기들을 재구성해가는 것이다. 끊임없이 소리지르는 그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그가 '진실된 보도' 밖에 모르는 외골수라고 수근대지만 그것은 진실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외로운 가부장의 행상을 그대로 묘사하며 또다시 '멋진 남성'에 대한 이미지를 그려낸다.

반면에 우진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경험들, 언어들과 자신을 둘러싼 소문들의 불일치를 경험하며 결국 남성의 언어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소문들과 결합하게 된다. 태석이 사건 현장에 뛰어드는 것은 무모하지만 결국 그가 너무 정의롭기 때문이라는 결론으로 이야기된다. 하지만 우진의 경우에는 그녀가 얼마나 무철한 기자인가에 관한 것과는 상관없이 그녀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혹시 그녀가 인정받고 싶거나, 스타가 되고 싶은 것은 아닌지에 대한 소문만 무성해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진이 그 행위 자체로 이야기화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녀가 '왜' 그런지에 대해 묻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구성된다는 것은 결국 우진이라는 주체는 사회가 구성해낸 남성성을 온전히 획득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진은 여성이며, 여성은 결코 남성과 같은 '정신'을 가질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그러한 모습의 우진을 불안해하고, 그녀의 '트렌스'를 아주 특별한 케이스로 치부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우진에 대한 소문들 역시 드라마가 진행됨에 따라 서서히 풀려가지만, 그 소문들이 사그라드는 과정 역시 결국 태석이나, 직장 상사로부터의 인정과 그래도 우진은 평범한 여성일 뿐이었다는 안도감에서 비롯되는 것이었다. 그녀의 '트렌스'가 애매해 지면서 결국 드라마는 다시 단단한 기존의 성별이분법적 구조속으로 안착하는 것이다. 결국 그녀는 그녀 스스로가 '우진'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 대신에 스스로를 '태석만큼 훌륭한 여기자'로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마지막 장면에서 우진이 태석이 보는 앞에서 '행키 놀이'를 하며, 상긋 웃는 장면이 두고두고 짙은 이유는 가부장제의 탄탄한 기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드라마 각본으로 인해 그녀의 삶이 앞으로든 평가받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되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소문들에 둘러싸여 살아가지만, 누군가는 그 이야기들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섞어가며 스스로를 구성할 수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끝까지 그들의 이야기를 속에서 자신을 평가받고, 인정받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떠도는 이야기들 속에는 누군가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구성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사회의 음모가 내재되어 있다. 평생 소문들에 파묻혀 내가 아닌 나로 규정되어버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누군가에게 자신의 모습을 점수 매김당하며 겨우겨우 생존하고 있을 것이다. 한 여자의 활약을 그린 드라마였지만, 그 속에서 우진은 끊임없이 남성 언어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또 다른 생존의 장에서 살아남아야 했다. 그저 그런 영웅 드라마의 이면엔 이토록 씁쓸한 한 여성의 성공기가 있는 것이다. ●

by 그렇게 말아야, 나누기



갑자기 마주친 그 음악에 괜히 핸드폰을 만지작대며 멈추어 섰던 그 거리를 알고 있는가. 라디오에서 집음이 두런두런 섞인 채 흘러나오던 그 노래 때문에 차마 내려지 못했던 그 버스를 알고 있는가. 신나게 대화를 나누다가 흘러나오던 그 기타음에 가슴이 저릿하여 맥주와 말을 함께 삼켰던 그 어두운 비를 기억하는가. 원치 않았던 기억의 편린을 사침가독한 귀로 흘러보내던 그 음악, 그 순간들.

날아보자, 찢어진 나의 날개로!

고백한다. 사실 나도 팬질 좀 했다. 이제까지 본인에게 경멸과 이해의 눈빛을 받았던 그 모으는 팬심(fan·in)이여! 미안했다. 솔직히 말하면, 난 좀 다르다고 생각했다. (그렇다고 똑같다는 건 아니고)

크라잉넛과의 첫만남(물론 직접 대면하여 서로 통성명하고 연락하고 그런 만남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은 고등학교 시절이었다. 처음 티비에서 인디밴드를 집중취재한 다큐 비슷한 프로를 보았고, 그들이 사는 방식, 그들이 입는 옷, 그들 주변 사람들 모두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그리고 당장 뽕뽕맞은 가사와 간단하고 시원한 사운드가 좋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을 동경하게 되었다. 서울만 가면 크라잉넛의 주 공연지였던 홍대 '드럭'을 꼭 찾아가리라고 결심도 했고, 그래서 수학의 정석 책 표지에 크라잉넛 사진을 크게 갈라 인쇄해서 붙이기도 하였다.



내가 뭘 어쨌다구, 날 보고 어찌라구
차라리 떠나버려, 잘가라 파랑새야

.....
잘가라 파랑새야아..... (웨!)

우리는 얼마나 많은 파랑새를 만나야 한다고 강요당해 왔던가. 내가 찾아야만 하는 파랑새가 어떤 모습인지를 주입당해 왔던가. 대학가면 연애한다. 공부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 돈 많이 벌어야 한다. 내가 원하는지 좋아하는건지 알 수도 없는, 당연히 원해야만 하는 그 수많은 파랑새들에게 차라리 떠나버리라고 바라바라 절규하는 그 목소리, 꺼져버려! 라며 가열차게 침을 뱉는 그 목소리, 나는 헤어날 수가 없었다.

때로는 겨울잠 자고 싶네 흰 눈이 내리면 너무 추워
개미들 열심히 일할 동안, 술취해 비틀거리나보세.
게으른 나는 바보 배짱이. 배짱도 없는 배짱이.
그래도 나는 일하기 싫어. 날 보고 손가락질 한다네.

.....
너의 머릿속의 순두부처럼,
너의 이빨속의 송충이처럼,
너의 심장속의 배짱이처럼 살아요.

나는 당연히 개미처럼 살아야하는 줄 알았다. 이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은 열심히 사는 것, 그것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 나는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게 싫었다. 남들이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해서 하고 싶었을 뿐이다. 개미들 열심히 일하는 동안 술취해 비틀거리나보세라고 말하는 일은 좌악이라고 생각했다. 세상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라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똑바로 바라보자는 거다. 티비와 조종동에서 넘실대는 백만개의 성

공신화를 이젠 집어치우라는거다. 우리가 바라는 삶의 가치들을 왜곡하고 그들의 착취를 정당화하는, 실은 우리가 이 구조 속에서 괴롭힘당하고 있음을, 나는 너희가 바라는, 성실하게 죽도록 일만 하다 끝내는 죽어버리는 개미로 살기 싫다고 말하자는 거다. 나는 배짱이로 살고 싶다는 거다.



사실 당시에 가사의 의미를 따져가며 좋아했다는 것은 아니다. 끊임없이 듣고, 모든 편지며 일기며 책에다가 그들의 가사를 적어놓았을 뿐이다. 친구들을 선동해서 씨디를 구입하게 했고, 그렇게 조직된 크라잉넛의 팬 대오가 인근 대학교 축제에 온 크라잉넛을 보러 단제로 야자를 째고, 그랬을 뿐이다. 가지도 않을 공연 일정을 밤마다 찾고, 이상하게 생긴 스티커를 주문하기도 하고 뭐 그랬을 뿐이다. 서울가면 꼭 크라잉넛을 만나리 가아지 라고 생각하며 공부했을 뿐이다.

그랬던 그들이 군대를 가고, 3집의 타이틀곡은 각종 가요쇼에 나오면서 대중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 노래방에 가면 꼭 '밤이 깊었네' 라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이 살짝 멀어지는 느낌이었지만, 그래도 믿었다. 3집의 알렘함은 그들의 나이들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여전히 그들은 홍대 구석 어딘가에서 바닥에 신문지 깔고 앉아 기타치고 노래하며 술마시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세월은 갔고, 그들도 돈을 벌었고, 결혼을 하게 되면서 예전의 젊었던 시절을 추억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추억담을 넣은 다음 앨범들을, 나는 듣고 싶지 않았다. 나에겐 여전히 현재형의 이야기였고, 그때 그들이 목에 핏대를 세워대며 불러가던 그 노래의 가사처럼, 나도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더럽혀지느니 있겠다는 마음으로, 나는 그들에 관한 어떤 소식과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우린 지금 눈을 감고 추락하고 있다.
소년 소녀들아, 지구를 박살내자.
갈 곳 없는 외로운 천사 수많은 이야기들,
내 사랑아! 너도 함께 같이 가자.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불어 나의 날개 시원하네
이런詹장할, 8미터 뿐이로구나
외로운 기러기 모기 토끼 소년 소녀들아
모두 추락해서 지구를 박살내자!

.....
날아보자 날아보자 날아보자 날아보자 날아보자
날아보자 날아보자 날아보자 날아보자 날아보자
꺾어진 나의 날개로...

내 팬질의 끝은 06년 본관에서였다. 당시 교육투쟁으로 본관을 점거하고 있었던 우리를 뒤로 하고 월드컵은 시작되었다. 밀쳐오는 월드컵의 광풍 속에 우리의 투쟁은 잊혀져가는 듯이 보였다. 월드컵을 보기 위해, 그리고 길어진 본관 점거에 지친 학생들이 하나 둘 대형 텔레비전이 있는 신촌 술집으로 빠져가던 때, 우리는 본관 총장실 옆에 있는 비서실 같은 곳에서 월드컵 개막 축하 공연을 보며 시청 광장에 설치된 휘황찬란한 무대와 조명을 저게 가격이 얼마니 음향이 뽕뽕하다느니 무대가 야씨바로 몇단이나느니 따위의 시시결렁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한국의 붉은 천사들이 승리할 것이며 대한민국이 좀 짱인 듯 이런 이야기들이 난무하던 티비 속의 그 무대에 크라이닝이 나온 바로 그 순간, 나의 모든 사고회로는 정지되었다. 시선을 거둘 수가 없었다. 그들 뒤로 거대하게 펼쳐지던 거대한 태극기로부터, 크라이닝을 연호하는 수많은 붉은 악마들로부터, 대한민국이 꼭 승리할 것이라는, 태극전사들은 우리의 영웅이라는 노래를 열창하고 있는 나의 소싯적 스타들에게서부터 말이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한 펑크밴드의 종말에 대해 신랄하게 욕해대는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스타가 되어 버린, 아니 구조에 포섭되어 버린 그들이 무대에서 내려갈 때, 나도 본관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어둑어둑한 백양로와 언더우드씨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울었다. 내 편을 또하나 보내며, 그러나 나는 변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

by 8미터의 꺾어진 날개 보노

강의실에서는
성희롱적, 성폭력적, 성차별적 발언들이
'똥' 유령처럼 떠다닙니다.

문제제기를 할라치면,
그저 유머였을 뿐이다
과학적 조사 결과를 인용했을 뿐이다
나는 가치 중립적인 뿐이다
그것은 학생의 발언이었다.
학생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 막지 않았을 뿐이다
등등

'무감각한 내탓이 아니라,
예민한 니탓이다'로 돌려버리는
'똥' 유령이 똥똥 떠다닙니다.

강의실에서 문제제기를 할라치면
두려워지는 것은
사건 처리를 지난하게 이끌고갈 너희들과
수많은 2차 가해들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공개적으로 사건 처리를 할라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지도 모르는,
몇몇 교수님들의 '똥같은' 이야기들을
모집하겠습니다!

'똥같은' 이야기는 제보자나 교수님의 실명은
삭제된 채, 익명으로 들어갑니다.

'똥같은' 이야기에 기분 더러워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공감의 리플이 달립니다.

'똥같은' 이야기는
무서워서 피하지 않고 더러워서 피하는 것이지만,
책어도 더럽다는 사실을 인지시키기 위해,

해당 교수님에게
<내눈에사과> 직접 배달 들어갑니다.

강의실의 '똥' 같은 이야기를 받습니다



교정 주제로 들어갈
강의실 똥같은 이야기!
<내눈에사과 - 강의실 '똥같은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action-fem@yonsei.ac.kr

● 주의!

〈강의실 통같은 이야기〉는 제보지도, 해당 교수님도, 해당 수업도 익명처리합니다. 강의실 언어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는 언제나 제보자에게 2차 가해를 불러오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언어 성폭력의 문제점을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이 교수의 학문적 권위로 누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지금 학내 분위기가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보자에게 지지와 공감을 보내기 위해 〈강의실 통같은 이야기〉 코너를 유지하고, 교수님에게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개별적으로 〈내눈에 시라〉를 배달하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눈에 시라〉 배달을 또다시 농담거리로 삼으시거나, 제보자를 찾기 위해 쓸데없이 눈에 물을 커도 돌아다니시는 분은 업기를 바랍니다.

강의실 통같은 이야기!

***수업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 교수님께서 러시아가 겪은 전쟁에 관해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는 패한 나라의 씨를 말려 나중에 반발할 세력을 없애곤 하다고 설명을 하시면서 남자들은 죽이고 여자들은 강간을 한다고 하셨죠. 거기까지 좋았는데, 그러면서 여기 있는 여자를 전쟁 나서 되면 강간당하고 여자를 피해가 막심하니 여기 남학생들한테 잘 해야 한다고 전쟁에서 지면 안 되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더 했죠. 사람들은 '하하, 그렇군요' 분위기였고 저는 인상 구기면서 멍머... 이러고 있었고 으... 문제제기 하기에는 너무나 소규모라 분위기가 감당도 안되고... 어이없이 말문도 막히고... 강의실 통같은 이야기는 항상 예상밖의 황당함을 갖추고 있어 참.

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성이 겪게 될 고통은 막심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전쟁에서 말벌하실 부분이 있으시네요. 여성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을 벌이기 전의 자국 남성의 자존심을 위해서 '잘 해야 한다'고요. 강간의 피해는 전쟁이 일어나든지 일어나지 않든지, 여성에게 일상적으로 다가오는 위협입니다. 전쟁 시에 발생하는 강간만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여성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여성을 '정복'했다거나, 자신의 나라의 여성을 '빼앗긴' 자국 남성의 트라우마인 것이죠. 심지어 그러한 자신의 트라우마를 여성에게 반영시켜, 보호하는 남성과 보호받는 여성으로서의 이분화를 통해 남성의 권력을 더욱 확고히 하려는 시도들은 너무나 당연시되어서 교수님

도 문맥적으로 인지하지 못하셨나봅니다 교수님,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죠

또 나라가 풍요롭고 번영할 때는 위대한 철학자나 문학가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죠. 그러면서 여러분도 잘을 때니까 철학적 고민보다 인애에 빠지고 아름다움을 찾아 다니지 않는다고 하시더군요. 점점 삼천포로 빠지더니 '아름다움의 과학'이라는 책 내용을 들면서 얘기도 할머니보다 젊은 여자를 더 좋아하더라는 실험결과도 있더라면서 아름다움도 능력이니 여러분 잘 관리하라고 요즘 성형수술이 성행이라는데 아름다움이 자원이라서 그런거라고... --

네, 아름다움이 자원이 되어가고 있는 사회입니다. 교수님이 사회 현실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군요. 하지만 그것은 아이들이 할머니보다 젊은 여자를 더 좋아하더라는 엉터리 실험의 결과가 아닌, 사회가 남성적인 시선에 길들여진 결과라는 것은 알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학은 무비판적으로 현재 사회에 순응해가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바꿔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는, 지식의 상아탑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그리고 뛰어난 제왕을 설명할 때 영웅호걸은 한 여자로 만족하지 못한다고 이런 설명을 하면서, 많은 애인을 가졌던 여제들에 관

해 설명할 때는 아랑 있는 여자들은 음란한 것 같다는 설명을 하지 않나.

'한 여자로 만족하지 못한다'와 많은 애인을 가졌다는 별달리 다른 말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웅호걸과 여제에 대한 교수님의 시선은 하늘땅의 차이를 보이네요. 지금보다 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권력을 쥔 여성은 다른 여성들보다 자신의 욕망에 좀 더 솔직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 욕망을 드러내는 방식은 어쨌든 기존의 남성의 방식을 따를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같은 울음 소리라도, 새벽을 여는 수탉의 소리와 집안을 망칠 암탉의 소리가 다르게 들렸을테지만요.

뭐, 이런 통 같은 수업을 패스하기 위해서 국극 참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업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존의 가부장적 시선들이 만들어놓은 통념들을 그대로 반복하시는 교수님, 반박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가부장제 시선을 가지고 살아간 것이 어찌 교수님 혼자만의 탓이었습니까. 하지만 그 시선을 교수님의 학문적 권위와 연결지어서 수업시간에 당연한 듯이 발언하시면서, 학생의 인내심을 테스트하게 만드신 것은 교수님의 탓이겠지요. 이제 인내심 테스트용 수업이 아닌, 즐거운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by 교수님, 이, 열, 상어

● 이외에도 〈강의실 통같은 이야기〉 제보가 있었으나, 지면상 들어가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지면에 들어가지 못한 제보는 내눈에시라 웹진버전 insideouttheuniverse, tistory.com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사과

해 Feat. 화분



사과해. 아니 그냥 죽어버리는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왜 그러는 건지 알다가도 모르겠지만, 나에게 물을 주지마. 그리고 내가 당신을 위해 꽃을 피울 꺼라고 생각하지마. 한번도 난 너한테 꽃을 피워주겠다고 한 적이 없어. 왜 니 멋대로 물을 퍼주고, 니 멋대로 가꿔놓고, 왜 니 멋대로 화를 내고, 왜 니 멋대로 꽃을 원하고, 왜 니 멋대로 죽이려고 하는건데.

어쩌면 너무 많은 '당신들'이 관계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지도 모른다. 그러기엔 당신들에게 내재된 관계 각본들이 강고해서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그 '무'고민, '몰'고민들을 내내 참아가며 살 수는 없다. 일방적으로 기대하고, 일방적으로 행위하고, 일방적으로 그 기대에 못 미치는 것들에 대해 화를 내는 '당신들'의 관계 맺기에 더 이상 침묵하거나 도망칠 수 없다. 나의 화념을 혼한 투정이나 어리광으로 본다면 더더욱 참을 수 없다.

'당신들은' 단 한번도 그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고민한 적이 없을 테다. 으레 가족이라면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거나,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애인이라면 이 정도쯤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테다. 한번도 나에게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것들을 당연한 것인줄 알았다며 매를 쓰는 당신들의 태도에 한 번,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는 나의 말에 어이 없다는 또는 열이 받는다든 소리 지르는 당신들의 태도에 또 한번 나는 질려버린다.

당연히 불화가 생길 수밖에. 당연히 나와는 얘기가 통하지 않을 수밖에 하지만 나의 말들이 당신들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불화의 온상. 이기적인 사람, 불만가득한 눈이 되어야 하는 거라면 여

기서 다시 한 번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당신들과는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내가 배제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이제 익숙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전가되는 부당한 감정노동들과 정신적, 육체적 압박들 그것들을 풀어내기 위해 또 당신들과 싸워야 한다는 스스로에게의 부담감들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나는 끊임 없이 이런 나의 상태에 대해 고발하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그 잘난 강고한 기획들과 구조들 틈 속에서 나는 살아남기 위해 누군가와 연대하고, 소통하고, '살고' 있으니 까, 당신들이 나에게 물을 주면 뱀을 거고, 꽃을 기대하면 끈끈이주걱을 피워 버릴거야. 당신들의 계획대로 살지만은 않을거야.

매일 매일이 녹록치 않다. 두동강 나버린 당신들의 나와, 나의 나 사이에서 원쪽 눈 실 핏줄이 터지도록 고민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뒤통이 뻐지기도 통 모르겠지만, 하나 두 개 세 개 확실해져가는 것은 당신들의 '물주기'가 당신들의 생각만큼 아름다운 꽃피우기의 과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번쯤은 당신들이 '하나다'라고 했던 것들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걸 상상해 본다면, 그 잘난 '원래'와 '본질'과 '원칙'들을 내다 버린다면 당신들이 준 물이 나를 말라죽이고 있었다는 걸 조금은 눈치 챌 수도 있을테다.

그러니까 일단 사과해. 화분도 나도 당신들이 뿌린 물을 먹고 꽃만 피우면 잘사는 게 되는 존재가 아니니까. ●

by 그렇다고 용서하는건 아니야, 나누기



습습 시간도 없는 시간표였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이 시간표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



남보다 (정이라도) 솔직하게

그저 머리부터 타고 싶은 욕망에 의해 남보다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하는 일 요구하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 하지만 확률에 있어야 하는 시간도 들어맞았다.



(종류가 같아도) 철저하게 나열하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대략에 간다는 것 뿐이었다. 할 수 밖에 없었다. 대략에 가면 끝날 거라는 것



무한 경쟁
뿐이었다

등록금 지옥 뻔했다.

후.기...

오늘도 간신히 버틴다.
취침 직전 할 일이 없을
짜증에 만들었다.
잠이 가다가 죽어만 말자.

나누기

비바문다.
저쪽과 나누기는 안쓰럽게 자고 있다.
어제의 끝자락, 이 시간은 어떤 기억으로 남게 될까.
상어 보고 싶다. 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다.
비가 그치면 잠이 가겠지.

보노

후자 측은 마음은 간담감이 없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냥
그것들 중 하나의 마음을 나 홀로 듣게 되려하는 중.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희극적인 점도 있고.
당대 대선 포도를 잡게 되고 마음 중이다.

삼어

가슴 한 편을 비워내서
사물함에 넣고 잠에 가고 싶다. 일일
자물